



계간지 『인인화락』은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인화락
Winter 2016 Vol.17

수원문화재단
Suwon Cultural Foundation
Winter 2016 Vol.17

인인화락

人人和樂
수원문화예술매거진





Editorial

일상을 전디는 힘, 웃음

웃음소리가 잘 들려오지 않는다. 웃음에 거울이라도 찾아온 걸까? 일상은 여여하고 현실은 어김없이 작동되고 있는 듯하나 크게 웃을 일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다. 어쩌면 이는 우리사회의 구조와 시스템 혹은 정치리더들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나이 탓인지도 모르겠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웃음에 인식해지기 때문이다. 또 다양한 형태와 장르의 유머들에 단련(?)되다보니 어지간한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게 되는 웃음의 '한계효용체감'이 아마 웃음의 불경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국민을 기쁘게 한 적이 거의 없는 정치에는 크게 기대할 바 없으니 그렇다 쳐도 웬일인지 그 흔한 박장대소나 홍소를 목격하기 어렵고, 실소와 냉소와 풍자가 우리의 일상을 빠르게 점령해가고 있다. 가히 웃음의 위기인 것이다. 여기에 유머텍스트를 생산해내고 부지런히 유통시켜야 할 청년들이 무겁게 침묵하고, 취업이라는 기약 없는 무한경쟁에 내몰려 있는 상황이어서 웃음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듯하다. 웃음 부흥회, '깔깔 대소회(大笑會)'라도 열어야 할 판이다. 그래서인가? 이 침묵과 실소의 카르텔을 깨기 위해 공연히 아재들만 바빠졌다. 아재 개그·부장님 개그·아빠 개그는 썰렁 개그의 대표선수들인지라 박장대소는 기대 난망이겠으나 그래도 그 충정이 가늠하다.

통상 웃음은 예상 밖의 엉뚱한 사태나 기대의 불균형에서, 겸연쩍음과 어색함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는 가벼운 호의의

표시와 통쾌한 승리의 감정에서 발생한다. 그런 웃음에서 얻는 소득이 뜻밖에 매우 크다고 한다. 혈류량도 늘어나고, 소화가 촉진되며, 스트레스와 고통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회적 불의를 질타하는 가치전복성도 있으며, 인간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순기능도 있다. 또 운동 효과도 있다. 우선 웃음은 횡격막의 단속적 경련과 근육의 수축을 동반한다. 그것은 무려 '605개의 몸 근육과 206개의 뼈 그리고 얼굴 근육 80개와 오장육부가' 총동원되며 칼로리가 소모되는 유쾌한 운동이기도 하다.

'웃음'을 본격적으로 다룬 문학작품으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장편소설 『웃음』을 꼽을 수 있다. 그의 『웃음』은 전통적인 웃음문학인 희극·소극·만담·풍자 등과는 거리가 멀다. 이 흥미로운 장편소설은 한 코미디언의 의문사 사건을 통해서 유머와 웃음의 의미를 생각게 하는 유머 미스터리다. 유머와 웃음을 둘러싼 치열한 암투와 '유머 기사단'의 존재도 흥미롭지만, "우리가 웃는 까닭은 현실을 초월하기 위함"이라는 주인공 이지도르의 마지막 멘트가 긴 여운으로 머릿속에 남는다.

웃고 싶지만, 유머보다 현실이 더 웃겨서 웃을 수 없다는 상황이 오히려 우습다. 아니, 웃프다! 팍팍한 일상을 건디고, 건강한 웃음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성찰과 노력이 필요하다. 취업전쟁과 국기문란 사태 같은 비정상과 무거운 침묵을 넘어 사회적 웃음을 회복하자. 한바탕 웃음이며, 웃음의 봄이며, 빨리 오시라!

문화지기 조성면 손모음

인인화락은 정조의 '호호부실 인인화락(戶戶富實 人人和樂)'에서 따온 말입니다. '집집마다 부유해지고 사람과 사람들이 화목하고 즐거워야 한다'는 위민군주 정조의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인인화락』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게재된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재단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01 Editorial 일상을 견디는 힘, 웃음 / 조성면

04 특집 웃음에 대한 성찰

05 특집 1 웃음에 관한 몇 가지 단상 / 김동식

08 특집 2 유머텍스트의 유형과 아재개그의 사회적 의미 / 한성일

12 특집 3 웃음, 그 사소한 구원 / 신현아

16 공연 preview 겨울에도 수원SK아트리움의 공연은 계속 된다 / 엄주웅

20 공방탐방 겨울에 어울리는 가죽냄새 한번 느껴보실래요? / 김영은

24 포토스케치 제9회 수원화성愛! UCC&사진 공모전 / 한예지

28 골목산책 이번 겨울에는 커피 말고 차 한잔 어때요? / 이미솔

34 수원유람 1 새롭게 바뀐 화성어차 타고 수원화성에 놀러오세요! / 김영은

40 수원유람 2 칠보산의 보물이 뭐냐고 묻거든 / 박설희

44 담장너머 1 스페인의 빌바오에서 '도시재생'의 새로운 지평을 생각하다 / 변청자

48 담장너머 2 전쟁의 아픔을 축제로 승화하다 / 이형복

52 예술인열전 젊은 안무가의 이야기 수원화성, 깨어나다 / 박경홍

56 인물포커스 프로젝트 그룹 '번지'를 찾아서 / 고병선

61 문화읽기 점성술과 조금 특별한 12+1개의 별자리 / 한수민

64 전통레시피 이 겨울 전통레시피로 몸을 보하다 / 이현희

66 능행차리뷰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백성의 도시에서 시민의 도시로 거듭나다 / 이동근

70 잡동사니 고전 인문학 이승휴의 북경 가는 길 / 황미숙

74 책 나들이 고전의 향기로 역사와 인물을 물들이다! / 김희만

76 문화달력

77 재단소식



01 Editorial
Laughter, the Power to Endure Everyday Life / Cho Sungmyun

04 Special Features
Reflection on Laughter
A Few Essays on Laughter / Kim Dongsik
The Type of Humorous Texts and the Social Significance of Anti Jokes / Han Sungil
Laughter, That Trivial Salvation / Shin Hyunah

16 Art&Space
Performances at Suwon SK Atrium Continues Even in Winter / Um Jooyong
Experience the Scent of Leather that Suits Winter / Kim Youngeun
The 9th Suwon Hwaseong Love! UCC & Photo Competition / Han Yeji

28 Sightseeing
Try a Cup of Tea Instead of Coffee This Winter / Lee Misol
Come to Suwon Hwaseong on New Royal Hwaseong Vehicle! / Kim Youngeun
Treasure of Chilbosan Mountain / Park Seolhui
Thinking of the New Prospect of "Urban Restoration" in Bilbao, Spain / Byeon Cheongja
Sublimating the Pain of the War in Festival / Lee Hyungbok

52 People
Story of a Young Choreographer - Suwon Hwaseong Awakens / Park Gyeonghong
Looking for a Project Group "Beonji" / Go Byeongsun

61 Story
Astrology and Little Special 12 + 1 Constellations / Han Soomin
Improve Your Health This Winter with Traditional Recipes / Lee Hyunhee
Reborn from the City of People to the City of Citizens / Lee Donggeun
The Way to Beijing by Lee Seunghu / Hwang Misook
Color the History and People with the Scent of Classics / Kim Heeman

76 SWCF
Culture Calendar
Foundation News



표지이야기
서장대는 팔달산 정상에 있는 장대(정수가 군사를 지휘하던 곳)로 화성행궁은 물론 성의 안팎을 모두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이다. 가을 내 북적이던 수원화성에 겨울이 오면 언제 그랬었냐는 듯 온 풍경은 고요하고 깨끗해진다. 소복이 쌓인 눈 위로 발자국을 남기며 팔달산 정상에 올라가 수원의 전경을 바라보면 마음까지 평화로워진다. 지난 한 해를 정리하고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하는 장소로 이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을까. <글. 한예지 홍보팀 그림. 청운>

수원문화재단 인인화락
통권 17호(비매품)
발행 2016년 12월 2일
등록번호 경기 바 50071
등록일 2012년 11월 14일
간별 계간
ISSN 2287-7479
발행인 김승국
편집자문 김희만 박설희
편집장 조성면
편집기획 홍보팀 한예지
편집위원 송현수 김영은 정다미 엄주웅 최인애
발행처 수원문화재단
주소 442-03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1(남창동)
전화 031-290-3600
홈페이지 www.swcf.or.kr
디자인인쇄 경인M&B

Special Features

웃음에 대한 성찰

특집1 / 웃음에 관한 몇 가지 단상

특집2 / 유머텍스트의 유형과 아재개그의 사회적 의미

특집3 / 웃음, 그 사소한 구원



Special
Features
특집1

웃음에 관한 몇 가지 단상

글 김동식 인하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문학평론가

1.

국어사전에서 웃음을 검색했더니 웃는 일이라는 설명이 제공된다. 뭔가 그럴듯한 설명을 기대했는데 웃음에 대한 설명이 기껏해야 웃는 일이라니. 이거야말로 웃을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웃음과 관련된 동어반복적 설명은, 웃음이 다른 단어들로는 설명되지 않는 인간의 원초적인 활동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인간은 웃을 수 있는 동물이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잠시 머릿속을 스쳐지나간다.

백과사전에 의하면, 웃음은 “쾌적인 정신활동에 수반된 감정반응”(『두산백과』)이다. 하지만 웃음은 쾌적인 정신활동과 무관한 상태에서, 달리 말하면 발바닥이나 겨드랑이를 간지럽히는 신체적 자극만으로도 생겨난다. 신체 현상으로서의 웃음은 횡경막의 단속적(斷續的) 경련과 관련된 자율신경계의 운동이다. 사람의 얼굴 근육은 80개 가량인데, 최대 50개에서 최소 12개의 얼굴 근육이 웃을 때 사용된다고 한다. 웃을 때 사용되는 얼굴 근육의 종류와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양한 웃음을 웃을 수 있고 섬세한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웃음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웃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웃음의 원인이나 대상에 따라 다른 의미로 주어진다. 웃음의 종류를 대충만 추려보아도, 소리 없이 빙긋이 웃는 미소(微笑),

마지못해 쓴웃음을 웃는 고소(苦笑), 크게 소리 내어 웃는 홍소(哄笑), 쌀쌀한 태도로 비웃는 냉소(冷笑), 빈정거리거나 업신여기며 웃는 조소(嘲笑), 어이가 없어 자기도 모르게 웃게 되는 실소(失笑) 등이 있다. 어디 그뿐인가. 웃음의 원인이나 웃게 되는 상황도 참으로 다양하다. 간지럼과 같은 신체적 자극, 욕망의 성취에서 오는 기쁨, 우스꽝스러운 모습 등에서 우리는 웃음을 터트린다. 동시에 딱히 할 말이 없을 때, 즉각적인 대답을 해야 하는 상황을 모면하고 싶을 때, 오래 기다려온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리고 꼴 보기 싫은 사람과 맞닥뜨려 모종의 연기(演技)가 필요할 때에도 우리는 웃음을 내보인다.

웃음은 의사소통적 행위이기도 하다. 우리는 웃음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의도나 생각을 읽어 내기도 한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웃음을 통해서 환대나 적대의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한다. 또한 누군가가 능글거리며 웃는다면 우리는 상대방이 뭔가 악의적인 비밀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나치게 환한 표정으로 사교(社交)적인 웃음을 지으며 다가올 때, 우리는 이 사람이 혹시 정치인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게 된다. 우리는 웃음소리나 웃는 모습을 통해서 만족·불만·악의·비밀·적대·친밀성·사교의 진정성 등을 감지하거나 전달한다.

2.

웃음의 원인 또한 다양하다. 놀이에서 주어지는 즐거움, 긴장의 이완이나 해방, 사교적인 필요 등은 웃음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심리적인 차원과 관련해서 웃음의 원인을 살펴보면, 우월성의 확인과 기대의 어긋남이라는 두 가지의 원인이 일반적으로 거론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비극이 독자인 나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영웅이 세계의 모순과 대결하다가 패배해 가는 과정을 그린 양식이라면, 희극은 독자인 나보다 못난 사람이 세계와 맞서다가 패배해 가는 과정을 그린다고 말한 바 있다. 비극과 희극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규정에서도 우월성의 확인과 기대의 어긋남이라는 측면이 내밀하게 적용되어 있다.

『리바이어던』의 저자 토머스 홉스는 웃음이 우월성에서 연유한다고 보는 대표적인 철학자이다. 홉스에 의하면 웃음은 승리의 감정이다. 웃음은 다른 사람의 결함을 보고 나 자신의 우월함을 인식할 때 생겨난다. 예를 들자면 생각지도 못한 무지와 마주하거나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보게 될 때, 나는 저들 보다는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며 웃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웃음은 기본적으로는 비웃음이며 우월성의 표지가 된다.

칸트와 베르그송은 웃음을 기대의 어긋남과 연관 지어 설명하는 대표적인 철학자라 할 수 있다.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잔뜩 기대한 그 무엇이 허망한 결과도 드러나게 될 때 긴장감이 이완되고 웃음이 일어난다고 말한다. 또한 베르그송은 『웃음』에서 “생명을 가진 인간이 기계처럼 경직되어 행동할 때 웃음이 나온다.”는 말로써 기계적 경직성에 근거한 웃음을 론을 제시한 바 있다. 찰리 채플린의 영화 『모던 타임즈』에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사를 조이던 주인공이 전화를 받으러 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나사를 조이는 행동을 하는 장면을 연상해도 좋을 것이다.

3.

일반적으로 우리는 권력이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웃으면 호방함이나 여유로움 또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 웃고 있는 경우에는 건방짐, 멍청함, 진지함의 결여, 지적 능력의 부족 등과 같은 표상을 부여한다. “바보 같이 웃은 놈 누구냐? 앞으로 나

와!”라는 말을 듣지 않고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수업을 하는 선생님 앞에서의 웃음은 멍청함 또는 바보스러움과 연동되곤 하는데, 웃는 동안에는 이성적 사고와 자기 통제가 잠정적으로 마비되는 상태에 접어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웃음은 통제와 훈육의 대상이 되어야 했던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웃음은 선생님과 교과서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는 지점을 지시하기 때문이다. 웃고 있는 학생은 선생님의 권위와 교과서의 진리 바깥에 마련되어 있는 또 다른 즐거움의 장소로 미끄러져 가있는 것이다. 웃음은 권위와 진리가 도달되지 않는 장소, 더 즐거운 그 무엇이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에 증언한다. 웃음은 바보 같은 것이다. 그와 동시에 웃음은 위협적인 그 어떤 것이기도 하다.

옴베르토 에코의 소설 『장미의 이름』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철저히 통제·관리하는 중세의 수도원이 등장한다. 그 책에 접근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여지없이 의문의 죽음에 이르고 만다. 수도원이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접근을 가로막고자 했던 책은 도대체 어떤 책이었을까. 다름 아닌 웃음에 대한 책이었다. 웃음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라고, 겨우 웃음에 대한 책을 지키자고, 그 난리를 쳤단 말인가. 하지만 웃음은 그리 만만하지 않다. 교황의 권위와 성경의 말씀이 만들어놓은 신성하면서도 엄숙한 분위기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키득거림에 의해 작은 균열이 생겨나 허물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세의 종교적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웃음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웃음은 보잘 것 없는 것이다. 하지만 권력이 강요하는 엄숙성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권력의 관점에서 보자면 웃음은 그만큼 위험한 그 무엇이다.

서양의 중세사회에서 웃음은 불경한 것으로 여겨졌고 종교적 의례에서는 추방되었다. 하지만 민중의 웃음은 추방될 수 없었다. 미하일 바흐친에 의하면, 사순절 직전의 카니발(사육제) 기간 동안 광장에 모인 민중은 저속하면서도 거리낌 없는 방식으로 웃음을 만들고 즐겼다. 어릿광대들은 성적 농담과 욕설을 늘어놓았고, 울고 웃고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육체의 권리가 주장되었으며, 성(聖)스러움과 성(性)적인 것들이 뒤섞이는 과정에서 웃음이 피어올랐다. 카니발적인 웃음과 함께 기

존의 위계질서가 전복되고 특권이 무화되고 규범과 금기가 허물어진다. 절대적인 것처럼 보였던 권위가 기껏해야 우스꽝스러운 상대성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민중적인 웃음에는 저항적이고 전복적인 힘이 가로놓여 있다. 참으로 비루하지만, 그래서 웃음은 위험한 그 어떤 것이다.

4.

11월 4일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국정농단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가 중계된다. 지하철에는 평소애 자주 보이던 연인들의 웃음도 들리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표정하게 핸드폰을 들여다 보고 있다.

11월 5일 광화문의 촛불 집회에 참여한 젊은 여성 두 사람의 얼굴을 텔레비전 카메라가 잠시 비춘다. 구호를 외치는 그들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진다.

11월 7일 검찰에 출두한 전 민정수석이 미소를 띠고 앉아 있고 그 앞에 후배 검사들이 공손하게 서 있는 사진이 공개된다. 검찰 사무실에서 전 민정수석의 변호사가 파안대소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었다고 한다.

11월 11일 최순실과 정유라의 독일 호텔 개업 기념파티 사진이 공개된다. 미소를 띤 모습들이다.

11월 12일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친다. 다양한 퍼포먼스들이 펼쳐지는 가운데 “다음 주말에 김장한다 주 중에 사퇴하라”와 같은 재기발랄한 표현을 보며 함께 웃는다.

2016년 가을, 한국사회에서 웃음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고자 작성한 일지이다. 권력자들은 국민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웃고 있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웃지 못하거나 웃지 않는다. 광화문 집회와 같은 곳에서 겨우 잠시나마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웃음의 불가능성,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웃을 수 없는 상황과 마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웃을 수 없는 상황이란 어떠한 것일까. 독일의 학자 플레스너는 웃음을 대답불가능성에 근거해서 설명한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 어떠한 대답을 내놓아야 할지 알 수 없

을 때 웃게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상황의 성격이다. 위협적이지 않는 상황이고 대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웃음이 생겨난다. 하지만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고 대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현기증, 발한, 매스꺼움, 구토, 졸도와 같은 신체적 위기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류중영, 『웃음의 미학』, 417~8면 참조.) 아마도 오늘날 많은 한국인들은 현기증이나 매스꺼움 직전의 웃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조차 유지되지 않는 상황, 달리 말하면 기대 자체가 붕괴되어 버린 환멸의 상태에서 웃음은 불가능성과 마주한다.

환멸의 상태에서도 광장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함께 웃고자 한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라는 대통령의 사과문이 발표되자, 인터넷에서는 “내가 이러려고 국민을 했나”와 같은 일련의 유머가 등장했고, 많은 사람들은 잠시나마 씩씩하게라도 웃을 수 있었다. 환멸의 상황에서 피어나는 유머. 일반적으로 유머는 냉정함이 동반된 정신적 우월감에 근거할 때 나타난다. 또한 프로이트가 말한 것처럼 유머의 쾌감은 감정의 소모를 절약하는 데서 생겨난다. 달리 말하면 유머는 적반하장격의 사과문 때문에 소모될 수 있었을 감정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허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감정적으로 소진되어 버린 사람은 웃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유머는 그 자체로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양식이기도 하지만 웃을 수 있는 정서적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드러내는 주요한 표지(標識)이기도 하다. 물론 웃음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웃음은 해방의 그 어떤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환기하고 보충한다. 우리는 웃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김동식 문학평론가이며 비평집으로 <냉소와 매혹>, <기억과 흔적> 등을 펴낸 바 있다. 현재 인하대 한국어문학과에서 현대문학과 문화론을 가르치고 있다.

유머텍스트의 유형과 아재개그의 사회적 의미

글 한성일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그림 청운

“왕이 궁에 가기 싫을 때 하는 말은?” ‘궁시령궁시령’이고, “세상에 제일 지루한 중학교는?” ‘로딩중’이다. 흔히 ‘아재개그’로 불리는 새로운 유머텍스트의 전성시대다. 아재개그는 유머코드가 유행에 뒤처져 있다고 해서 부장님 개그로도 불린다. 아재개그는 코미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광고 및 각종 예능프로그램에서도 단골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유머텍스트는 오랫동안 당대 사회의 다양한 모습들을 대변해 왔다. 따라서 아재개그 역시 현 사회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 글에서는 아재개그의 형식과 웃음유발의 원리를 전통적 유머텍스트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 후, 아재개그에 투영된 사회적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유머텍스트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구성 요소를 수반한다. 즉 ‘구조 만들기(set up)’와 ‘급소 찌르기(punch line)’다. 두 사냥꾼이 숲 속에서 사냥을 하던 중 한 명이 갑자기 쓰러졌다. 다른 사냥꾼은 구조 센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친구가 죽은 것 같다며 소리쳤다. 상담원은 차분하게 그가 정말 죽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총성이 들렸다. 그리고 남자가 말했다. “됐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요?” 이 유머텍스트는 영국의 한 연구 기관에 의해 가장 재미있는 유머로 선정되었다. 친구의 죽음을 확인해야 한다는 상담원의 충고가 구조 만들기

다든지 하는 행동을 예상하게 한다. 그러나 그 이후의 결말은 우리의 예측을 보기 좋게 벗어난다. 급소 찌르기에서 사냥꾼은 확인 사살을 통해 친구의 죽음을 확인한다. 그리고는 당당히 다음에 할 행동을 묻고 있다. 우리는 상담원의 충고를 잘못 이해한 바보 같은 사냥꾼에 행동에 웃게 된다. 아재개그 역시 이와 같은 유머텍스트의 일반적인 구성 요소를 갖고 있다. “왕이 궁에 가기 싫을 때 하는 말은?”이라는 질문, 즉 구조 만들기에 수용자들은 많은 것들을 예상하게 된다. ‘왕은 어떤 상황에서 궁에 가기 싫을까?’ 하지만 급소 찌르기에 해당하는 답변은 엉뚱하게 불만이 있을 때 내뱉는 말을 표현한 ‘궁시령궁시령’이다. 왕이 궁에 가기 싫으니 당연히 불만에 차서 ‘궁시령궁



시렁' 했을 것이기에 개연성이 있어 보이며, '궁(이) 싫어 궁(이) 싫어'와 발음의 유사성을 웃음의 포인트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엉뚱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 급소 찌르기가 갖는 매력이다.

유머텍스트의 유형은 다양하게 발전해 왔다. 고전적 유형을 갖춘 유머도 꾸준히 생산되고 있고, 새로움을 더하려는 의도에서 새로운 유형들도 생산되고 있다. 유머텍스트는 화자의 구연방식에 따라 '서술형'과 '문답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생산자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수용자에게 질문을 던진 후 정답을 말하는 방식이다. 문답형은 수수께끼형, 삼행시형, 재분석형으로 세분할 수 있는데, 아재개그는 '수수께끼형'에 속한다. 수수께끼형은 전통적인 수수께끼의 형식을 빌려서 웃음을 주는 유형으로, 흔히 말하는 난센스 퀴즈가 이에 속한다. "먹으면 먹을수록 떨어는 탕은?" '추어탕'하는 식이다. 수수께끼는 수용자가 그 문제를 풀 수 없도록 방해하는 방해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중의성이라는 개념과 연관이 있다. '추어탕'의 경우 '추워'와 '추어'의 발음의 유사성에서 중의성이 발생한다. 이러한 중의성이 유머텍스트를 접하는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고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것이다. 동음어를 활용해서 중의성을 유발하는 것은 수수께끼의 전형적 모습이며 이러한 형식을 활용한 유머텍스트는 가장 오래된 형태다. 한 시장에서 선비가 잣을 파는 상인에게 잣을 가리키며 "이게 뭐요?"라고 물었다. "잣이요." 그러자 선비는 그 잣을 집어 먹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에 쓴 잣을 가리키며 "이게 뭐요?"라고 물었다. "잣이요." 그러자 선비는 그 자리를 떠났다. '잣이요'를 '자시요'로 '잣이요'를 '가시요'로 해석한 유머텍스트다. 중의성의 활용은 철학자 베르그송이 말한 것처럼 하나의 텍스트에 등장하는 단어의 중복이 익살스러운 효과를 낼 수 있는 있는 중요한 기법이다. 하지만 '동음어'를 활용한 방법을 베르그송은 가장 시시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재개그는 그 형식에 있어 비교적

저급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유머텍스트의 웃음 유발 원리는 간단히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상대에 대한 우월감이 웃음을 유발한다는 우월감 이론, 안도와 긴장의 완화에서 웃음이 발생한다는 해소론, 그리고 웃음을 인지적 차원의 부조화와 연관 짓는 부조화론이 있다. 부조화론은 특정한 담화나 행동이 본래 취지와는 다른 맥락의 이야기로 청자에게 전달됨으로써 발생하는 오해에서 웃음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아재개그의 웃음 코드를 설명하는 데는 부조화론이 적절해 보인다. "세상에서 제일 지루한 중학교는?"이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세상에 있는 많은 중학교 중에 학생들이 지루해 하는 학교는 어떤 곳일까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로딩중'이라는 급소 찌르기가 우리에게 '컴퓨터 용어가 왜 중학교 이름일까?'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이 때 우리는 '중'이라는 단어가 '중학교'와 '~중'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질문의 의도를 알아차리는 순간 부조화가 해결되면서 웃음이 발생하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 본 아재개그의 형식과 웃음유발의 원리는 전통적 유머텍스트와 비교해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새로울 것도 없지만 가장 시시한 형태의 유머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러한 진부하고 시시한 유머텍스트에 '아재개그'라는 이름을 붙이고 환호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저씨와 다른 '아재'라는 새로운 인물군의 등장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아재'는 아저씨의 경상도의 방언, 또는 아저씨를 낮춰 부르는 말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아저씨'라는 말을 두고 '아재'라는 사투리를 사용한 것일까? 그것은 아재가 주는 친근함과 부드러움이 아재개그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아저씨는 조금은 딱딱하고 형식적이며 다소 멀게 느껴지는 반면, 아재는 친근감을 준다. 아저씨가 젊은 세대와 소통이 어려운 고지식한 캐릭터라면, 아재는 젊은 세대와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일부 아저씨들의 별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도 젊은 세대와 소통하지 못하는 권위적인 아버지나 선생님 또는 중년의 기성세대들을 '꼰대'라는 은어로 불렀다. 꼰대라는 말에는 가까이 하기 어렵고 말이 통하지 않는 답답한 존재라는 의미가 반영되어 있다. 과거에도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소통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는 기성세대의 권위에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시대였다. 권위적인 아버지와 선생님, 그리고 직장 상사와의 소통은 항상 어렵게만 느껴졌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다. 기성세대의 권위는 예전만 같지 못하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아버지와 선생님, 그리고 직장 상사의 권위는 눈에 띄게 떨어졌다. 게다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SNS를 통한 소통이 일상화되면서, SNS소통에 익숙하지 못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불통이 더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때에 권위적인 아저씨들이 젊은 세대와 소통하려는 변신을 시도하고 나섰다. 이들이 바로 아재들이다. 아재들은 젊은 세대와 SNS에서 소통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패션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도 젊은 세대에 뒤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젊은 세대와 호응하려는 이들의 노력이 유머텍스트에도 나타났으며 그것이 바로 아재개그다. 진부하고 시시한 형식의 텍스트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재들의 한계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고리타분한 유머텍스트를 통해서라도 상대방을 웃겨보려는 그들의 노력은 고리타분하지 않고 참신하다.

불통의 시대라고 한다. 소통은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원만한 관계는 행복을 가져온다. 행복은 소통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소통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말할 때는 최선을 다하지만 남의 말을 듣는 데는 인색하다. 웃음도 마찬가지다. 남을 웃기려면 먼저 내가 웃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잘 웃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웃기려고 노력한다. 심지어는 유머감각을 키워야 한다며 요란을 떨기도 한다. 자신도 즐겁게 웃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웃길 수 있는가? "한국의 시청자들은 웃을 준비

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웃기기 힘들다."는 한 개그맨의 볼멘소리를 들을 적이 있다. 남의 이야기에 마음을 열고 크게 웃어주자. 열심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가 재밌어."라고 타박하는 사람하고는 아무도 대화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별로 재미가 없어도 열심히 웃어주자.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아재개그는 우리에게 '재미없어도 열심히 웃어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야 세대 간의 갈등과 차이를 넘어서서 진정한 소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아재개그에 젊은 세대가 기꺼이 웃어줄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다. 눈물나게 아재개그를 구사하는 모든 아재들의 바람도 이것일 것이다. 아재개그는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소통에 대한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인기 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의 '아재씨'라는 코너에서 개그맨 박형진은 아재의 악령으로 등장해 수많은 아재개그를 쏟아낸다. 마지막에 그는 웃지 않는 방청객들을 향해 이렇게 외친다. "지금은 웃지 않지만, 나중에 혼자 웃을 거다." 젊은 세대들을 향해 너희들과 소통하려는 내 노력을 좀 이해해 달라. 그리고 너희들도 마음을 좀 열어달라는 간절한 부탁처럼 들린다. 방청석의 20~30대는 이 아재의 간절함에 웃음으로 화답한다. 진정한 소통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다. 🏠



한성일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초빙교수다. <유머> 등을 지었으며, 스피치와 토론 관련 과목을 가르치면서 연구 영역을 소통 그리고 인간관계로 넓혀 가고 있다.

웃음 그 사소한 구원

글 신현아 문화평론가

‘병맛’: 뜬금없는 세계를 냉소하기

만화와 ‘병맛’의 차이가 모호해지고 있다.

만화는 문화를 반영하는 데 세상이

‘병맛’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 엉덩국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읽기는 ‘폼’ 안이 아니라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핸드‘북’이 아니라 핸드‘폰’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 신문기사든 통상적으로 만화라고 부르는 것이든 마찬가지다. 지하철 옆자리 사람을 방해할 필요도 없고, 침을 묻힐 필요도 없다. 침을 묻히면 오히려 읽기는 중지될지도 모른다. 건조하고 메마른 환경이 중요하다. 비록 방수가 된다고는 하지만, 배터리가 터질지 어떻게 알겠는가. 물론 그렇다고 책에 음료를 쏟을 때, 그 책의 이미지나 글자를 볼 수 없도록 훼손될 수 있지만 핸드폰으로 열린 ‘텍스트’ 자체가 손실을 입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중요한 것은 읽기 관습의 변화가 단순히 테크놀로지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문화 텍스트의 서사적 구조 역시 기왕의 문화 양식 아래에서 성숙한 서사적 구조와 같은 방식으로 제공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존의 출판만화가 ‘칸’의 분할을 통한 연출을 기본으로 한다면, 웹툰은 손가락으로 칸의 분할에 운동성을 부여하면서,

세로축의 ‘스크롤’을 연출의 조건으로 삼는다. 만화·‘책’에서 ‘웹’—툰으로 매체의 프레임이 변화하자 그 매체를 향유하는 독자와 그들이 공유하는 서사적 코드 역시 달라진다. 『점프』(일본 집영사에서 발행하는 만화잡지)로 대표되는 출판만화는 ‘우정·노력·승리’를 캐치프레이즈로 하는 주인공의 성장서사가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웹툰이 우정과 노력을 통해 승리를 이루는 기—승—전—결의 ‘만화’와 구분되어 독자적인 서사와 웃음 코드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은 ‘병맛’의 발명으로부터이다.

가령, 한 청년이 버스를 기다리며 담배를 피우다가 버스에 탑승하면서 실수로 요금통에 지폐와 담배꽂조를 같이 넣어버리고, 이로 인해 버스 안에 불이 붙는다. 청년은 갑자기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라고 외치고 버스 기사도 이유없이 “오케이!” 라고 외치며 불타는 버스는 청와대로 돌진하여, 전원 사망으로 끝난다. (이말년, 〈이말년 씨리즈: 불타는 버스〉) ‘우정·노력·승리’나 ‘성장’은 커녕 뜬금없이 불이 붙고, 뜬금없이 돌진해서, 아무 결과도 내지 않고 끝나버린다. 기—승—전—결의 서사에서 나타나는 논리적 인과성이 붕괴되어 있는 ‘기—승—전—병’이라는 뜬금없고 맥락없는 서사에 대한 웃음이 바로 *‘병맛’의 웃음코드이다. (*이는 ‘병신맛’을 줄인 일종의 험오발하이기도 하다.)

또한 이 ‘기승전병’의 서사는 인터넷에서 빠르게 소모되는 유머코드를 끊임없이 패러디하고 재배치함으로써, “삶의 시간

상당부분을 웹에서 거주하는 소위 ‘헤비—유저들’을 명백하게 겨냥한다.”(김수환, 『웹툰에 나타난 세대의 감성구조』, 『탈경계인문학』, 2011.) 그리고 이는 ‘작가인 너나 독자인 나나 웹의 패러디를 향유하는 잉여’라는 공감대를 형성한다. 즉 허탈한 ‘병맛’이 웹툰의 지배적인 웃음 코드로써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청년 세대가 자신의 미래를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렵게 하는 현실을 기—승—전—병으로 감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예측불가능성에 무력하게 휘둘리는 청년 자신은 ‘병신’ 또는 ‘잉여’로 규정된다. 그러니 ‘병맛’의 웃음코드는 사실상 ‘병신’이라는 자학/자조와 허탈한 웃음을 섞은 ‘냉소’에 가까운 것이다. (김수환, 앞의 글) 하여 ‘병맛’의 웃음은 그런 스스로에게 냉소하는 동시에 나만 그런 ‘병맛’의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위안이다.

〈복학왕〉: 사소한 구원의 웃음



인지를 구분할 필요조차 없어진다. 더 이상 냉소조차 할 수 없을 때, ‘잉여’들은 이 현실을 어떻게 마주하는 것일까.

기안84의 〈복학왕〉은 그런 면에서 ‘병맛 이후’의 서사로 읽어보길하다. 〈복학왕〉의 전작인 〈패션왕〉은 10대의 생활을 ‘병맛 넘치는’ 리얼리티로 담아냈다. 주인공 ‘우기명’은 ‘패션의 왕이 될 남자’를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정작 패션왕을 뽑는 오디션에서는 야성을 드러내다 못해 진짜 늑대가 되어서 갑자기 숲으로 도망가 버리는 등 그야말로 ‘기승전병’의 서사를 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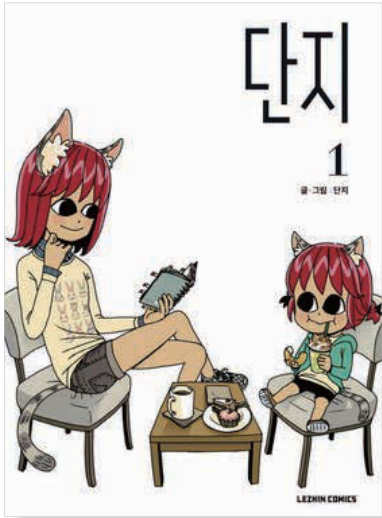
준다. 그리고 〈복학왕〉은 〈패션왕〉의 ‘병맛 넘치는’ 인물들이 20대 대학생이 되어서도 여전히 어처구니없는 ‘잉여’로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린다.

그러나 〈패션왕〉의 ‘기승전병’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어처구니없게 탈출하는 것이었다면, 〈복학왕〉의 ‘잉여’들은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부대끼면서도 도망치지 않고 적응해나가는 중이다. ‘교생실습’ 편에서 주인공 우기명은 교생실습을 간 고등학교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출한 학생과 소통하며 자신의 10대를 떠올리기도 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길에서 살아야만 하는 현실을 납득하기도 한다. 그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자책하면서도 학생의 눈물을 마주보며 에피소드를 마친다. 여기에는 어떤 기승전결적 완결이나 성장도 없지만, 그럼에도 이 ‘병병병병’인 현실을 ‘병맛’이라고 냉소하지 않는 ‘마주봄’이 있다.

하여 〈복학왕〉의 서사는 인터넷 유머코드의 끝없는 패러디에서 벗어나 다시 삶 위에 발을 딛게 된다. 여전히 현실은 보잘 것 없고 뜬금없음의 연속이지만 냉소하지 않고 마주보게 되는 와중에 사소하고 찰나적 구원의 계기가 찾아오기도 한다. 〈복학왕〉‘결혼식’ 편에서 우기명은 〈패션왕〉에 등장한 10대 시절 여자 친구인 박혜진의 결혼식에 참석한다. 친구들의 위치가 돌이킬 수 없게 변해버렸다는 것과 자신의 현실이 보잘 것 없음을 자조하는 우기명에게 박혜진은 “고마워. 잘 지내.” 라고 작별 인사를 건넨다. 그리고 그 순간 교복에 ‘노스페이스 패딩’을 입고 ‘뉴발란스 운동화’를 신은 10대 시절로 돌아간 모습으로 조금 웃으면서, 우기명도 “너도 잘 지내.”라고 답한다. ‘병맛’이었던 날을 자조하거나 자학하지 않고 “고마워”라고 말하며 마주하는 그 찰나에 그들은 ‘잉여’나 ‘병신’이 아닌 다른 존재로 스스로를 구원한다.

이처럼 〈복학왕〉은 패배적 냉소 이후의 서사로 ‘우기명’의 성장을 그려내고 있지만, 그것은 이전의 ‘우정·노력·승리’라는 극복과 기승전결의 서사로 회귀하지 않는다. 하여 우기명은 무엇에도 승리하지 않지만 그러나 패배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그는 자신을 해명하거나 인정받기 위해 투쟁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나가기에, ‘병맛’으로 상징되는 20대의 냉소적 세대론과 다른 서사를 그려나가게 된다.

〈단지〉: 웃음은 눈물 맞



그러나 자신을 ‘병신’이라고 냉소하는 것에서 ‘마주봄’으로 나아가는 것은 사실 간단치 않은 문제이다. 여전히 현실은 내가 제대로 마주보기 전에 갑자기 나를 덮치고 몽개어버린다. 그럴 때 ‘냉소’는 그 마주보기조차 힘겨운 것을 간신히 버텨내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수단이기도 하다. 작가명도 작품명도 주인공의 이름도 모두 ‘단지’인 〈단지〉는 가부장적 아버지와 어머니, 오빠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받고 차별당해온 30대 여성인 단지 작가가 자신에 대한 자전적인 이야기이면서 냉소를 넘어서기 위한 힘겨운 싸움의 기록이기도 하다. 이야기는 이미 가족에게서 분가한 ‘단지’가 이제 학대의 기억으로부터도 독립하기 위해 다시 가족과 기억을 대면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단지〉의 첫 번째 이야기 속에서 단지는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떠밀고 훈계를 하는 오빠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난 또 거기서 병신같이 웃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어린 시절 엄마가 송곳으로 ‘단지’의 눈을 찔러버린다고 말한 날의 일기에는 “오빠도 나보고 ‘병신’이라고 엄마도 나보고 ‘병신’이라고, 모두 없어져 버려라!” 라고 쓰여 있다. 이 ‘병신’이 ‘잉여’들의 ‘병맛’과 등치될 수는 없지만, 언제 어디서 자신을 몽개버릴지 모르는 폭력이 도사린 현실 속에서 생존해나가는 자신에 대한 서글픈 호명이라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 한다. 이 서글픈 웃음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현재의 ‘단지’가 이야기 내내 보여주는 얼굴이기도 하다. 무력하지만 붕괴되지 않기 위한 시도인 이 웃음은 TV에서 가정폭력 생존자 소년의 인터뷰를 보던 날, 그리고 큰 결심을 하고 엄마에게 심정을 털어놓았지만 소통에 실패하던 날 울음으로 터진다.

‘단지’는 1부를 맺으며 엄마와의 새로운 관계도, 남동생과

마음 편히 기댈 수 있는 관계를 맺는 것도 “아무 것도 못했어”라며, “해피엔딩을 바랬을 순수한 독자들 김빠졌겠네. 근데 내 인생이란 게 영화나 드라마 같지 않더라고. 그럼 다크냐? 아냐. 그것도 아냐. 그냥 아——무것도 아냐.” 라고 말한다. 그러나 단지가 서글픈 웃음으로밖에 견딜 수 없었던 현실을 조금씩 구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되지 못한’ 바로 그 지점이다. “내 결말이 이런 식이기 때문에, ‘화해하지 않아도 돼’라고 말할 수 있어서 사실 다행이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해피엔딩’이 오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사연과 접속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아무것도 아님’에서 ‘단지’의 의미를 엿보게 된다. 얼핏 만화의 내용과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단지’라는 단어가 작가이자 제목이자 주인공이었던 이유는 작가가 H.O.T의 히트곡 〈캔디〉를 듣는 모습에서 얼핏 드러난다. “단지 널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이제껏 준비했던 많은 말을 뒤로한 채.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다신 너 혼자 아냐. 너의 곁엔 내가 있잖아. 캔디.” 이 가사처럼 해피엔딩이 아니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나라도, 그저 ‘단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싶다는 솔직한 바람과 그렇게 누군가의 곁을 지키고 싶다는 바람이 담긴 ‘단지’이기에 또 다른 ‘단지’들을 불러 모으는 연대의 자리가 된다.

또 다른 ‘웃음’

점점 더 폭력적이고 우연적이고 ‘뜬금없어’지는 현실 속에서 승리 아니면 패배, 생존 아니면 절멸이라는 선택지에서 매번 어느 쪽으로 내몰릴지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다. 그렇게 ‘병맛나는’ 현실에서 내몰린 자신을 ‘병신’이라고 냉소했던 우리는 이제 다른 표정을 만들어가는 중이다. 그 표정은 현실에서 부대끼는 당신과 내가 함께 이기지도 지지도 않으며 연대의 손을 잡고 마주 볼 때의 바로 그 웃음일 것이다. 🌟



신현아 월간 〈바람의 연구자〉의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내가 연애를 못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인문학 탓이야』(공저)를 함께 썼다.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 기념제 53회 수원화성문화제 불암공연
원행을묘정리의궤를 바탕으로 한 전통예술 활성화용·복합극
수원문화원부설수원민속예술단·글로벌공연단·개별작품
오늘날 잊혀져가는 가족의 뿌리·도망의 만남을 통한 화해와 용서의 이야기

해후

2016. 12. 9 (금) 오후 7:30 - 10 (토) 오후 5:00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
Suwon SK Artrium

티켓 I R석 20,000원, S석 10,000원 관람연령 I 만 7세이상 관람가능

공연예매 I 수원SK아트리움 www.suwonskartrium.or.kr

인터파크 1544-1555 <http://ticket.interpark.com>

공연문의 I 수원문화재단 031)250-5300

겨울에도 수원SK아트리움의 공연은 계속 된다

글 엄주용 공연기획팀

생각보다 빠르게 가을이 지나가고 또다시 겨울이 돌아왔다. 늘 그렇듯 더우면 추운 겨울이 그립고 추우면 뜨거운 여름이 그립다지만 그래도 겨울은 그 나름대로의 맛이 있고 낭만이 있다. 계절과 상관없이 늘 좋은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수원SK아트리움은 추운 겨울을 맞아 자녀, 애인, 부모님 손을 꼭 잡고 함께 올 수 있는 따뜻한 공연을 준비해놓았다. 이렇게 겨울에도 수원SK아트리움의 공연은 계속된다.



호두까기 인형

12월 수원을 찾아온 낭만동화 〈국립발레단-호두까기 인형〉

수원SK아트리움과 국립발레단이 오는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선보이는 〈호두까기 인형〉은 러시아 볼쇼이 발레단을 33년간 이끌었던 ‘살아있는 신화’ 유리 그리가로비치의 안무 버전(1966년 볼쇼이 극장 초연)이다. 12월이면 전 세계 곳곳에서 공연되는 〈호두까기 인형〉은 다양한 버전이 있지만, 특히 유리 그리가로비치 버전은 같은 〈호두까기 인형〉이라도 어린 이들의 시선에 맞춰진 동화라기보다는 웅장하고 스펙터클한 구성으로 성인 관객에도 매력적인 작품이다. 따라서 환상적인 동화의 세계에 대한 향수뿐만 아니라 고난도의 안무가 선사하는 쾌감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발레다.

이번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은 러시아 볼쇼이 발레단을 33년간 이끌었던 ‘살아있는 신화’ 유리 그리가로비치의 안무 버전으로, 1966년 볼쇼이 극장에서 〈호두까기 인형〉을 초연하면서 우선 프티파의 대본 자체를 뜯어고쳤다. 여자주인공 ‘클라라’는 이름을 ‘마리’로 바꿨고, ‘드로셀마이어’는 법랑가, ‘마리의 아빠’는 의사라는 식으로 등장인물의 직업까지도 세세하게 재설정하였다. 또한 러시아 볼쇼이 정통 발레의 웅장한 무대에서 선보이는 고난도의 테크닉은 어른들까지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게다가 주인공 마리와 왕자님의 로맨스도 있어 연인들의 데이트로도 안성맞춤이다. 〈호두까기 인형〉이 이렇게 대중적 인기를 얻게 된 데는 화려한 춤뿐 아니라, 작곡가 차이콥스키의 음악도 한몫 한다. 차이콥스키는 2막 ‘눈송이

왈츠’에 합창을 삽입하여 펄펄 내리는 눈송이의 분위기를 살렸고, 사탕요정의 춤에 ‘첼레스타’(차이콥스키는 작곡을 의뢰 받고 오케스트라 편성에 쓸 새로운 악기, 첼레스타를 찾으러 프랑스까지 달려갈 정도로 작곡에 열성적이었다.)라는 악기를 사용하여 마치 아침이슬이 내려앉는 듯한 영롱한 효과를 끌어냈다. 피콜로로 표현된 앙증맞은 중국 춤, 현악기와 관악기가 떠들썩한 러시아 춤으로 나라별 음악적 특징이 절묘하게 표현된 것도 놀랄만하다. 게다가 왈츠를 특히 좋아한 차이콥스키의 취향대로 ‘꽃의 왈츠’, ‘눈의 왈츠’ 등 다양한 왈츠 음악을 듣다 보면 정말로 무도회에 온 듯 멜로디에 몸을 맡기게 된다.

공연을 하는 국립발레단은 1962년에 창단된 최초의 직업발레단으로 국내 최고의 무용수들과 세계 유명 작품을 레퍼토리

로 보유하고 있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발레단이다. 대표적인 클래식 레퍼토리는 러시아 볼쇼이발레단의 ‘살아있는 거장’이라 불리는 유리 그리가로비치가 안무한 〈호두까기 인형〉, 〈백조의 호수〉, 〈스파르타쿠스〉, 〈라 바야데르〉와 파리오 페라발레단 전 부예술감독 파트리스 바르가 안무한 〈지젤〉을 꼽을 수 있다. 국내에서 ‘찾아가는 발레이야기’, ‘찾아가는 발레교실’, ‘해설이 있는 전막 발레’와 같은





러시아 국립 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 공연 모습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국립발레단은 해외에서도 대한민국 발레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발레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이탈리아·러시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캄보디아·인도·인도네시아·라오스에서 발레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며 활발한 문화외교 활동을 펼친 바 있다. 2014년, 독일 슈투트가르트발레단의 수석무용수로 활약 중이던 강수진 예술감독을 맞이하여 국립발레단은 더욱 다양한 레퍼토리 구축과 발레문화융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호두까기 인형>에는 어린이와 어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요소가 다양하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캐릭터와 인형도 등장한다. 2막 전체는 왕자와 마리의 결혼식에 각 나라 인형들이 축하의 춤을 추는 형식으로 꾸며졌다. 2막에 나오는 각국 인형들의 춤은 다른 버전에 비해 훨씬 민속성을 강조시켜서 이국적인 냄새가 강하고, 선이 굵고 역동적인 춤을 선호하는 그리가로비치답게 회전과 도약 등 다른 버전에서는 볼 수 없는 동작들이 끊임없이 나와 관객들의 눈을 호강케 한다.

할리퀸의 높은 점프·콜롬비아의 고난도 회전·여자 악마와 남자 악마의 깜찍한 춤·눈의 왈츠, 각 나라 인형들이 왕자와 마리의 결혼식에서 추는 스페인 춤·인도 춤·중국 춤·러시아 춤·프랑스 춤·화려한 연주로 호화로운 분위기를 돋우는 꽃의 왈츠, 마리와 왕자의 결혼 2인무 등 지루할 틈 없이 화려한 춤의 축제가 계속된다. 또한 러시아 불쇼이 정통 발레의 웅장한 무대에서 선보이는 고난도의 테크닉은 어른들까지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게다가 주인공 마리와 왕자님의 로맨스도 있어 연인들의 테이트로도 안성맞춤이다.

그리가로비치는 기존의 버전에서는 마임으로 만들어진 부분을 모두 춤동작으로 바꾸어 춤의 가짓수가 대폭 많아졌고,

또한 기교적으로도 대단히 어려운 동작이 이어져 여러<호두까기 인형> 버전에서는 가장 다채롭고 화려한 춤의 테크닉을 즐길 수 있는 작품이다.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된 손님들의 등장부터가 춤으로부터 시작되고, 기존의 춤들도 대폭 강화해 고난도의 테크닉을 요구하는 안무들이 강화됐다. 차이콥스키는 특히 러시아 특유의 투박하고 웅장함을 잘 그려낸 작곡가인데, 그의 음악이 유리 그리가로비치의 안무랑 만나 시너지 효과를 이룬다. 다시 말해 러시아 민족성을 지닌 두 아티스트가 만나 작곡자가 원했던 스타일을 안무자가 잘 그려내 러시아적 특성을 잘 나타낸 작품이 탄생했다.

예를 들면 뛰어난 군무 활용으로 짝 찬 무대를 선사하며 웅장한 무대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 큰 특징이다. 보통은 주인공이 춤을 출 때 군무는 움직이지 않고 주역의 춤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리가로비치 버전에서는 군무진이 마치 움직이는 무대장치와 같이 끊임없이 대열을 변화시켜 시각적으로 화려함과 웅장함을 동시에 선사한다. 2막 ‘꽃의 왈츠’에서 보통은 주인공인 마리와 왕자가 파트되 아다지오를 추는 장면에서 기존의 클래식 발레나 다른 버전의 <호두까기 인형>에서는 보통 군무들이 없는데, 유리 그리가로비치 버전에서는 군무들이 같이 나와 끊임없이 변화하는 대형을 만들어 더욱 무대를 다채롭게 꾸며준다.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은 2막 ‘꽃의 왈츠’ 전 마리와 호두왕자를 크리스마스 랜드로 안내하는 드로셀마이어가 플라잉 기법으로 하늘을 날며 두 연인들을 환상의 나라로 안내한다. 이 버전에서만 볼 수 있는 이 장면은 <호두까기 인형>의 신비감을 증폭시키며 관객들의 탄생을 자아내는 명장면으로 특히 놓치지 말아야 할 순간이다.



<봉수당-만년의 수를 누리다>의 한 장면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은 12월 2일(금) 저녁 8시, 3일(토) 오후 5시에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에서 관객을 만나며, 관람연령은 48개월 이상이고 티켓가격은 VIP 7만원,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이다.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은 특별 기획공연 ‘해후’

수원화성 축성 220주년을 기념하며 진행된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아 특별 제작된 공연이 수원SK아트리움을 찾는다.

지난 7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수원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첫 선을 보인 수원문화원의 <봉수당-만년의 수를 누리다> 공연이 뮤지컬 대장군, 사랑은 비를 타고, 내 마음의 풍금 등 우리에게 익숙한 작품으로 유명한 오은희 작가가 극본을 맡고, KBS 탤런트 정의갑씨가 출연하는 등 새롭게 구성되어 더욱 완성도 높은 공연으로 수원SK아트리움을 찾을 계획이다.

‘원형을묘정리의궐’에 기록을 바탕으로 한 지역의 역사 스토리로 1795년 수원화성행궁 봉수당에서 열린 어머니의 회갑잔치 과정을 중심으로 ‘정조’와 ‘혜경궁 홍씨’의 대화를 통해 인간 본연의 뿌리와 효의 진정한 가치,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등을 담아내고자 했다. 무용수들의 아름다운 궁중정재 및 몸짓 등의 다양한 볼거리와 더불어 ‘정조’와 ‘혜경궁 홍씨’의 복잡한 감정을 대립과 이해라는 관점으로 풀어내는 배우들의 수준 높은 연기 등 깊이 있는 공연이 될 것이다.

수원문화원 부설 수원민속예술단 안영화 단장이 연출을 맡았으며, 그간 활동했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원의 대표 공연콘텐츠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다.

기존 효를 바탕으로 한 스토리에서 벗어나 아버지 ‘사도세자’를 잃은 정조와 남편 ‘사도세자’를 잃은 혜경궁 홍씨의 마음속 아픈 기억과 모자 간의 심정을 담은 융·복합 스토리로 관람

자에게 공감을 줄 수원문화원의 해후는 12월 9일(금) 저녁 7시 30분과 10일(토) 오후 5시에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에서 관객을 만나며, 관람연령은 만 7세 이상이고 티켓가격은 R석 2만원, S석 1만원이다.

만원에 담겨 있는 재미있는 과학이야기

<만원의 비밀-장영실>

만원? 대부분 만원하면 세종대왕을 기억한다. 하지만 만원 뒷면에 있는 조선시대의 과학자 장영실의 발명품 천문관측기 ‘혼천의’는 잘 알지 못한다. 조선시대 과학자 장영실의 발명품을 노래/영상/무용으로 쉽게 익히고, 먹고 싶은 것도 사고 싶은 것도 많은 경제, 신용이 두 아이들과 함께 올바른 소비와 돈의 소중함을 배우는 기회가 될 것이다.

<만원의 비밀-장영실>은 체형형 공연으로 이루어진 어린이 과학 체험 뮤지컬로써 체험과 공연을 통해 교과서 속 조선시대 과학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 공연 전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농경문화체험(농악놀이와 모내기 등)을 악기 연주 등을 통해 체험하고, 조선시대 과학자 장영실의 발명품(측우기·자격루·혼천의·앙부일구 등)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배워볼 수 있다. 그리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조선시대 과학자 장영실의 발명품을 극과 영상으로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는 이번 공연은, 극 중 한국무용의 아름다운 몸짓을 보고 느낄 수 있고 더불어 어깨가 절로 들썩이는 신나는 노래를 통해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따라 하게 되는 과학 체험 뮤지컬이다. 아이들에게 재미와 감동 그리고 교육을 함께 줄 수 있는 이 뜻깊은 공연은 수원SK아트리움 소공연장에서 12월 8일(목) 오전 11시에 진행되며, 관람연령은 만 24개월 이상 관람 가능하고 전석 만원이다. ★



겨울에 어울리는 가족냄새 한번 느껴보실래요?

글 김영은 화성공연팀 사진 박김형준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날, 비가 멈추길 기다려 화성행궁 화령전으로 가는 길에 있는 작은 공방 한 곳을 찾아갔다. 습기 가득한 공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공방은 어떤 곳일까?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 어떤 느낌일까? 끊임없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부지런히 걸음을 옮겨 도착한 곳의 이름은 흙씨공방. 유리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니 많은 가족제품들이 보였고, 공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가족냄새가 가득한 작업실에서 한창 단체 주문받은 가죽벨트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 김효진 작가를 만나볼 수 있었다. 생각보다 곱고 깨끗한 손을 가진 김효진 작가님과 의 기분 좋은 일문일답.



흙씨공방의 작가 김효진님

흙씨공방의 상품들



가족공예



재단 공예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작가 어렸을 때부터 손으로 뭘 만드는 걸 좋아 했어요. 손을 안 쓰면 심심해할 정도로, 미술시간에 만든 걸 집에 와서 또 만들어보고, 그러다 스무 살 때부터인가, 동네에 문화센터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거 길 다니면서 이것저것 배우게 되었죠. 원래는 제가 심한 알 러지성 비염이 있어서 천연비누나 화장품을 만들었었어요. 알려지에 좋을 거 같아서, 그리고 계속 이것저것 공예를 해 보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알려지 때문에.

재단 아 그래서 오늘도 마스크를 끼고 계시나봐요. 환절기라 더 심하죠?

작가 네, 맞아요. 아무튼 계속 배우는 건 이것저것 배웠어요. 가족공예는 지 금 한 5년 정도 되었거든요? 천이나 나무가 안 맞아서. 가 족은 천연소재 좋아요. 천이랑 다르더라고요. 천과 나무는 먼지 때문에 재채기가 많이 나더라고요. 가족공예도 본드 나 염료 때문에 알려지에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 중 제일 나아요. 아무튼 처음 공방은 수제 화장품 쪽으로 냈고, 일상생활 제품도 함께 만들긴 했지만 재미가 없었어 요. 모양도 예쁘고 실용적이기도 했지만 공예다운 재미는 못 찾겠더라고요. 그렇게 가족제품을 많이 만들다가 가족 공예에 완전 빠지게 되었지요.

재단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사는 건 행복한 일 같아요. 복 받으신거예요.

작가 물론이죠. 좋아하는 걸 업으로 삼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공예가가 꿈이었는데 꿈을 이뤘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행복한 일이지. 먹고 살기 위해 다른 일을 한 적도 있지만 항상 퇴근 후 에는 이것저것 많이 배웠어요. 꾸준 히, 그리고 손에서 놓지 않고.

재단 그럼 그렇게 만드신 작품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어떤 것일까요?

작가 여행 가려고 만든 백팩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한번 작업을 시작하면 끝을 봐야 하는 성격이에요. 가방 하나 하려면 보 통 수작업으로 제단부터 염색하고 바느질까지 2~3일 걸리 거든요? 근데 여행을 문득 가고 싶은데, 내가 만든 가죽가 방을 너무 메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24시간 밤을 꼬박새워 만든 적이 있어요. 씻지도 않고, 아침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꼬박. 그래서 그 가방을 메고 여행을 잘 다녀왔죠.

재단 가방 만드시는 솜씨가 정말 뛰어나시네요. 그럼 이런 가방은 가 격이 얼마 정도 일까요?

작가 천연가죽이라 너무 이쁘죠? 이런 가방을 만드려면 20~25 만 정도 들어요.

재단 소중한 사람의 생일선물이나 갓 취업한 사람한테 이런 가방을 선물해주면 너무 기억에 남을 듯해요.

작가 맞아요. 특히나 직접 만들어준다면 더욱 기억에 남겠죠. 크 게 어렵지는 않지만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 소중한 사람 에게는 해줄만한 가치가 있죠.

재단 신이 버린 손재주를 가진 저에겐 정말 어려운 일일 거 같은데...

그래도 도전은 해보고 싶네요. 저도 (웃음) 그럼 배우신 여러 장르 중 가장 자신 있는 공예 장르는 뭔가요?

작가 가죽공예가 제일 자신 있어요. 제가 특히 디자인이랑 염색을 좀 잘하는 거 같아요. 저는 모방하는 걸 좀 싫어하는 편이라서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디자인 작업을 해요. 요즘 시중에 돌아다니는 패턴이 많아요. 실제로 재료상에서 판매하는 패턴들을 사다가 그냥 만드는 경우도 많은데, 전 그런 게 싫고, 독창적으로 하고 싶어서 염색도 저만의 빈티지한 기법을 많이 써요. 대부분은 기성품처럼 흉내를 많이 내려고 하는데 저는 거기서 탈피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기성품과는 완전 차별화를 두고 싶어요. 특히 집시풍이나 히피풍, 빈티지한 디자인은 제일 자신도 있고 이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남들은 흉내 내기 좀 힘든 (웃음) 염색 스타일은 남다르다고 많이들 해요. 그리고 가죽공예를 할 때 수작업 바느질도 되게 중요한데, 꼼꼼하게 누구보다 잘 할 수 있어요.

재단 행궁길에 자리를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작가 수원에 산지 오래됐고 부모님이 지금 신평동에 사세요. 그래서 자주 왔다갔다 왕래하다가 행궁이 있는 이 동네가 예쁜 것은 물론이고 발전 가능성과 재미까지 더할 수 있겠다 싶어서 자리 잡게 되었죠.

재단 행궁동에 공방이 많은데 홀씨공방의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작가 명함케이스, 핸드폰케이스, 지갑, 필통 등 가죽 제품을 만드는 클래스가 많이 있어요. 재밌어요. 누구든 쉽게 할 수 있어

요. 그리고 저희 공방이 특이한 게 가죽팔찌 만들러 연인들이 많이 와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이 되니까요. 커플들이 선물로도 많이 주고받고,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재단 애인이 바뀌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모른 척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웃음)

작가 실제로도 그러신 분들이 몇 분 있었는데 모른 척 헤드렸어요. (웃음)

재단 공예나 클래스도 보면 그때그때 약간 유행을 타는 거 같아요.

작가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배웠어요. 스무 개 정도 공예 했구요. 자격증이 열 두 개 정도되요. 투자를 많이 한 거죠. 그런데 가죽공예 같은 경우엔 유행을 타지 않고 뭔가 오래가는 느낌. 변하지 않는 느낌.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재단 간판을 보자마자 홀씨공방의 뜻이 궁금해졌어요. 민들레인가요?

작가 민들레 홀씨 맞아요. 널리 퍼지라는 뜻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혼자 살아서 홀씨라고 했냐며...(웃음) 널리널리 소문이 퍼져 많이들 찾는 공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재단 앞으로 어떤 작품들을 하고 싶으세요?

작가 만들고 싶은 건 거의 다 작업 했지만, 가방 종류를 좋아해서 이것저것 다양한 가방들을 더 만들고 싶어요. 제가 원래 가방을 좋아해요.

재단 그렇죠, 백은 모든 여자들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작가 그런가요? (웃음) 아무튼 이런저런 가방을 많이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서 누가 봐도 홀씨공



홀씨공방 소품

방 작품이라는 걸 알아 줄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어요. “이 집 독특하네”, “이 공방만의 무엇이 있어”, “홀씨 작품인 거 같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 말이 제일 듣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있고요. 사실 가죽공예가 전통이 오래된 공예는 아니라 개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서로의 특색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많이 배워가서 가까이 가게 많이 차려도 돼요. (웃음)

재단 가죽공예가 다른 공예에 비해 좀 힘들다 하는 점이 있나요?

작가 지금은 작품보다는 상품을 위주로 제작하고 있지만 작품 전시회도 몇 차례 했는데, 체력적으로 쉬운 일이 아닌 거 같아요. 가죽을 재단하고, 자르고 두드리고, 그래서 요즘엔 예전보다 어깨 관절이 안 좋아졌어요. 언젠가는 힘이 부칠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앞으로의 고민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재단 그럼 가죽공예를 시작한 걸 후회하신 적은 없는지요?

작가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앞으로도 놓고 싶지 않고요. 제자도 많이 가르쳐 봤는데 자꾸 주변에 가게를 차려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제자는 더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웃음) 농담이고요. 공예는 어디서 누구한테 배우든 간에 얼마나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 같아요. 저도

재단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작가 가죽이 주는 고유의 느낌이 있어요. 빈티지하고 따뜻한 느낌. 겨울에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또 천연 가죽은 고급스럽죠. 정성이 가득 들어간 가죽소품으로 좋은 선물을 하는 것은 물론 소장용으로도 좋아요. 감동은 배가 될 거예요. 가죽다이어리 같은 것도 너무 좋죠. 가죽에 관심이 있거나 공예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홀씨공방을 찾아주세요. 다양한 클래스로 쉽게 가르쳐드릴게요. (웃음)

작지만 힘이 느껴지는 공방에서 따뜻하고 유쾌하게 대화를 이어가다보니, 시간이 금방 흘러 어느덧 약속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홀씨공방이 김효진 작가의 말대로 특색 있는 아이덴티티로 널리널리 퍼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홀씨공방이 되길 기대해본다. ✨



홀씨공방

위 치 화성행궁 화령전 근처 생테마을 초입. 신평초 후문방향 (신평동 185)
문의전화 031-244-1038, 010-4722-8812
운영시간 월요일, 일요일 휴무
(여는 시간: 평일 10시, 주말 13시 / 닫는 시간: 20시)
블로그 http://gywsl71.blog.me/
클래스정보 가죽공예, 천연비누, 아로마향초 등(취미반, 원데이클래스, 자격증반)



사진부문 금상 황혼의 대화 _ 김용곤



드론사진부문 금상 동북각루의 여름 _ 이지영



사진부문 은상 달빛 궁궐 _ 황규호



사진부문 동상 기다린 나들이 _ 김윤주



드론사진부문 은상 추억의 장안문 _ 성진현



드론사진부문 동상 WELCOME TO SUWON! _ 정재훈

제9회 수원화성愛! UCC&사진 공모전



사진부문 수상자



드론사진부문 수상자



UCC부문 수상자

지난 9월 30일 제9회 수원화성 愛! UCC&사진 공모전 수상작이 발표되었다. 8월 2일부터 9월 20일까지 수원 화성을 사랑하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펼쳐졌던 공모전은 총 247작품이 응모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올해로 9회를 맞는 수원화성愛 UCC/사진 공모전은 우리의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 사진과 영상을 통하여 수원화성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국내외로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매년 개최되고 있다. 내년에는 10회를 맞이하여 상반기에 공모전이 개최될 예정이니, 수원화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놓치지 말고 공모전에 참여해 보자!

수상내역	작 품 제 목	성 명
금상	황혼의 대화	김용곤
은상	달빛 궁궐	황규호
동상	기다린 나들이	김윤주
경기도지사상	화성을 도는 위성들	이종우
경기도교육감상	변함 없는, 변화	원예진
수원시장상	과거,현재,미래	김철언
대학총장상	현재의 적	신수빈
대학총장상	성벽들의 하모니	김서연

수상내역	작 품 제 목	성 명
금상	동북각루의 여름	이지영
은상	추억의 장안문	성진현
동상	WELCOME TO SUWON!	정재훈

수상내역	작 품 제 목	성 명
금상	수원화성은 락(樂)이다	신정림
은상	수원화성에서-인생을-논하다	조규정
동상	화성고래	김수진, 황인성
경기도지사상	화성을 빛내는 7가지 꽃	원희수
경기도교육감상	옛 화성과 지금	이민형, 차성민
수원시장상	그사랑화성	김서연
수원시의회의장상	수원화성으로 오수원	김소련

※ 다른 수상작들은 수원문화재단 공식블로그 http://blog.naver.com/swcf_kr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커피 말고

차한잔 어때요?

글 이미지 문화기획자 사진 박김형준

다전1973 대표 조병주님

바람은 차고, 정전기는 찌릿찌릿. 밤이 길어졌다고 덩달아 많아진 아침잠에 전생애 꿈이 아니었을까 진지하게 고민해본다. 문밖을 나설 땐 머플러에 장갑까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크게 심호흡 한번. 그야말로 겨울이다.

올해도 역시 설 새 없이 터진 크고 작은 일들로 정신없이 달려왔다. 매일 잠을 자기는 했지만 우린 정말 잘 쉬었을까? 정리할 것도, 만날 사람도 많은 연말이 코앞인 만큼, 잘 쉬는 것은 중요하다.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는 커피는 잠시 치워두고, 몸과 마음을 쉬게 해줄 향긋한 차를 한 잔 마시는 건 어떨까.

커피와 잎차에는 잘 알려진 공통점이 있다. 바로 카페인이다. 저녁에 마시면 잠을 설칠만큼 카페인의 각성효과는 잘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차를 마실 때도 불면증을 걱정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잎차에 함유된 테아닌 성분은 카페인의 흥분작용을 억제하고 오히려 진정 효과를 보여준다. 테아닌(Theanine)이라는 이름부터 차(Tea)의 혁명에서 유래했을 만큼 녹차 등의 차와 몇몇 식물 외에는 구할 수 없는 특수한 성분이다.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알파파를 증진해서 휴식을 가져다준다는 테아닌. 그만큼 차는 몸과 뇌를 함께 이완시킨다. 장맛비 같지 않게 나긋나긋 내리는 눈처럼, 어쩐지 말도 손짓도 느껴지는 겨울. 똑똑한 잎차부터 감기몸살에 특효인 생강차까지 만날 수 있는 세 곳의 전통 찻집 <다전1973>, <단오>, 그리고 <시인과 농부>에 다녀왔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누리는 차 문화알리미 <다전1973>

수원문화재단이 자리한 화성행궁 앞 광장을 지나 <다전1973>을 찾았다. 작은 정원이 있는 주택 건물에 터를 잡은 이곳은 올해 1월 문을 열었다. 들어가자마자 진열장 가득 찻잎과 찻그릇이 가득하다. 정면에는 계산대와 주방이 있고 양쪽으로는 객실들이 자리한다. 주택을 개조했기 때문에 작은 방을 객실로 사용하고 있다. 아늑한 구조와 멋진 통나무 테이블이 인상적이다.

대표 조병주 씨는 20대 초반 행궁동의 찻집 <시인과 농부>를 만났다. 그 후로 직장생활에 지쳐 찻집을 찾을 때면 음악이 흐르고 따뜻한 차가 있는 분위기에 다시금 기운을 내곤 했다. <시인과 농부>를 내 집처럼 드나들다보니 자연스럽게 ‘언젠가는 나만의 찻집을 열겠다.’는 꿈을 가지게 됐다고. 누군가에게 언제라도 부담 없이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픈 마음도 더했다. 따라서 직장생활 도중 차 공부를 시작했고 한국차문화학교에 다니다가, 점점 활동을 넓혀 아이들을 위한 차문화 교육도 시작하게 됐다. 조병주 사장은 지금 두 아이의 어머니다. 교육활동을 하면서 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들과도 커피가 아닌 차를 일상적으로 마시게 된 어느 날, 오랜 꿈을 두드린 한 마디가 있었다.

“병주야, 이제는 네가 원하는 걸 시작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더 늦으면 다시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점찍어 두었던 행궁동에서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마음에 드는 곳이 있었지만 망설이다가 계약시기를 두 번이나 놓쳤다. 그러던 중 지금의 자리가 눈에 들어왔다. 현관 앞에 집이 지어진 연도를 목판으로 새겨둔 장소. 오래된 세월만큼 사람냄새가 배어나는 곳이었다. 이곳을 본 날, 자려고 누운 뒤에도 2층에 부서지던 햇살이 눈앞에 어른거리기에 당장 계약을 했고, 공간이 정해지자 이후는 일사천리였다. 그렇게 올해 1월 <다전1973>이 문을 열었다. 그 과정에서 꿈을 심어주었던 찻집, 시인과 농부에서 많은 조언을 해줬다.

<다전1973>에서는 차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 큰 방에서는 매달 중국차 공부 모임을 연다. 꾸준히 차를 공부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다도 교육을 하는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차를 마시는 일이 생활이 되어 가게에서 뿐 아니라 집에서는 항상 찻그릇을 펼쳐놓는다. 진열장에 진열해두면 좀처럼 손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거실에 두면 수시로 식구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자리가 만들어진다. 친구들과 차를 마시다 보면 한자리에서 3~4명은 거뜼하게 마시게 된다고 한다. 그러는 동안 이야기는 끊임없이 피어난다.

생활 속의 차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특히 초·중·고 학생들에게 다도교육을 시키도록 열심인 데는 이유가 있다. 한복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정해진 순서로 차를 우리고 내는 연습을 하는 동안 아이들은 차분하게 흐르는 색·향·미를 배우고 자기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한다. 오랜 연습으로 아름다움을 우러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다도의 매력을 알게 된 학생들은 욕심을 내서 대회에 나가기도 하고, 시연하는 자리에 나서기도 하는 등 자신감을 얻기도 한다.

이곳에는 차 애호가들이 찾아와 각자의 취향에 맞는 차를 고른다고 한다. 찻잎을 구매할 수도 있고, 매장에서는 녹차에서 보이차까지 다양한 숙성과정을 거친 차 종류와 각종 대용차를 모두 즐길 수 있다. 보이차와 녹차의 차이도 몰랐던 나에게 열정적으로 설명해주시던 조병주 사장의 눈빛에서 차를 알아가는 기쁨,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차를 나누는 즐거움을 엿볼 수 있었다.

다전1973 메뉴



다전1973 정보

전화	031-8031-5677
주소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42번길 6, 1층
영업시간	오전 11:30~오후 9:30 (월요일 휴무)
추천메뉴	동방미인 등
대표(인터뷰)	조병주



떡카페 단오



다전1973



시인과 농부



과거와 현재의 역동적인 만남 떡카페 〈단오〉

이제 문을 연지 만 5년을 넘기고 있는 떡카페 〈단오〉. 행궁 입구에서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젊은 시절 20년 정도 연극계에서 활동했다는 표수훈 사장을 만났다. 사방이 통유리로 되어있는 활기찬 〈단오〉의 분위기처럼, 경쾌한 중절모를 쓰고 맞아 준다.

가게 입구쪽에는 '제호탕'을 설명하는 패널이 걸려있었는데, 거기에 적힌 이야기가 흥미로웠다.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굶고 있던 며칠, 어떤 궁인이 몰래 제호탕을 건네기도 했다는 것이다. 피부병을 앓던 사도세자는 생전에도 이 제호탕을 즐겨 먹었다고 하는데, 정조 임금은 수원화성을 축조하는 동안 여

름의 더위에 고생하는 인부와 관리들을 위해 이를 하사하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몸의 열을 내려주는 효능이 있어서 여름에 좋고, 배탈과 설사 그리고 기침을 멎게 한다. 특허를 출원하여 이곳 〈단오〉에서만 맛볼 수 있다.

이런 독특한 음료를 어떻게 개발하게 됐는지 궁금했다. 연극계에서 활동하던 시절 조선시대 궁중에 몰두하여 숨겨진 이야기들을 파고들었다. 자연스럽게 전통 식문화에 관심을 두었고 떡과 차를 연구한 끝에 오늘날의 〈단오〉를 열게 됐다. 전통적인 소재들로 현대적인 공간을 연출했고, 문헌으로만 남아있거나 거의 명맥이 끊긴 차와 떡을 다시 만들어보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 제호탕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

효능을 살리면서 현대적인 입맛으로 맞추고, 캐릭터도 디자인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단오’는 우리나라의 삼대 명절에 들어갈 만큼 큰 명절이었다. 그런데 가족 단위로 모여서 지내는 설이나 추석과는 달리, ‘단오’는 마을 단위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놀이를 즐기던 공동체의 명절이었다. 표 사장은 그 전통과 문화를 다시 발굴하고 오늘날까지도 소중한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학자들이 그걸 연구하고 찾아낸다면, 그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역할을 〈단오〉에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표 사장은 살아난 행궁동처럼 전통문화도 함께 살아나서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숨 쉬게 만들고 싶다고 한다. 나이 지긋한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찾는 〈단오〉에는 전통차는 물론이고 커피까지 현대와 전통이 공존한다.

떡카페 단오의 내부



떡카페 단오의 외부



대표 조민경(좌) 표수훈(우)



떡카페 단오 메뉴



떡카페 단오 정보

전화 031-244-9615
주소 경기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28
영업시간 오전 9:30~오후 11:30 (연중무휴)
추천메뉴 제호탕
대표(인터뷰) 표수훈, 조민경

차와 예술로 우려내는 삶 <시인과 농부>

마지막으로 찾은 <시인과 농부(시농)>는 오기 전부터 <다전1973>과 <단오>에서 벌써 많은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두 곳 찻집이 첫걸음을 땔 때 차나 음식, 그리고 점포 운영까지 정성껏 전수해준 정신적 지주가 바로 이곳 <시농>의 이지현 사장이다. 조미료나 화학재료가 들어간 음식을 먹지 못하는 이 사장은 모든 차를 직접 만드는데, 10시간 이상씩 달여야 하는 차도 많다. 차와 함께 <시농>의 특제 기본간식 삶은 감자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손대지 못한다.

30년 이상 가게를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이 시농에 다녀갔다. 손님부터 매장에서 일해준 아르바이트, 그리고 후배 찻집 운영자들까지. 그들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메뉴판 뒤에 함께 철이 되어 있는 빈 종이는 손님들의 방명록이다. 찻집 한쪽에는 그동안 손님들이 남긴 인사말이 천장까지 쌓여있다. 어쩔 그렇게 사람을 좋아하는지, 아직 몇 마디를 나눴을 뿐인데도 벌써 권해 주는 영화며 다른 좋은 점포 등이 한두 개가 아니다. 영화 포스터를 만지작거리고 있으니 대뜸 최근에 개봉한 영화 '춘몽'의 광고지를 들고 오더니, 얼마 전 보고 왔다면 기회가 되면 보러 가라고 권한다.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주려는 마음이다. 그런데도 아직 자기는 품이 넓지 못하다는 말을 한다.

“영화나 책, 음악... 워낙 많이 보아 왔으니까요. 계속해서 그런 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시농>에서 차만 마시는 게 아니라 문화 정보들도 가져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21세기를 살아갈 수 있는 소셜화페라고 생각해요.”

찻집의 온 벽에는 비디오·레코드판·시디와 영화포스터·책·조각품과 회화 작품들로 가득하다. 예술작품은 모두 시농에서 만난 사람들의 작품을 직접 구매한 것들이다. 영화 속 인물을 들여다보며 사람에 대해 배운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차에 들이는 정성도, 이렇게나 많이 모은 음반이며 책들도 모두 시농이 품은 사람에 대한 애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행궁동에는 <다전1973>과 <단오> 외에도 요가학원이나 미용실 그리고 카페 등 <시농>과 인연이 깊은 사람들이 곳곳에 자리 잡아서 서로 돕고 음식 등을 나누며 연을 이어가고 있다. 행궁동에서는 '시농패밀리'라고 하면 이미 좋은 점수를 받고 가게를 시작한다고 할 정도로 잘 알려져 있다. 이들의 정기 모임에서는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고민한다. 삶의 터전에 대한 애정이, 내가 잠드는 곳뿐만 아니라 내 발길이 닿는 지역사회 전체가 우리의 터전이라는 생각이, 오랜 세월 쌓인 인연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리잡은 것 같았다.



손님들의 방명록



시인과 농부의 외부



시인과 농부의 내부

차 사랑을 공유하되 각자 다른 모습으로 개성을 꾸며가는 세 찻집을 돌아봤다. 올해 막 시작해서 중국 전통차와 다도 연구에 열심인 <다전 1973>, 퓨전 전통 다과로 노인부터 젊은 세대까지 활발하게 흡수하고있는 떡카페 <단오>, 30년째 예술과 차로 행궁동 깊이 우러난 <시인과 농부>. 때론 휴식을 맞이해야 내가 힘들었구나, 눈물을 흘리고 나서야 내가 슬펐구나, 깨닫게 될 때가 있다. 나는 행궁동을 돌고 나서야 따뜻한 우리 동네가 그리웠던 것은 아닐까 되뇌며 그곳을 빠져나왔다. ☘

시인과 농부 메뉴



수정과 6,500원



삶은 감자



대추차 7,000원



감주 6,000원

시인과 농부 정보

전화	031-245-0049
주소	경기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796번길 8
영업시간	오후 1:00~10:00 (화요일 휴무)
추천메뉴	감주, 대추차, 수정과 등
대표	이지현



이미솔 시각예술을 전공하고 다양한 문화계를 들여다보며 글을 쓴다.

새롭게 바뀐 화성어차 타고 수원화성에 놀러오세요!

글 김영은 화성공연팀
그림 임은영

역사와 문화의 도시 수원. 그리고 수원의 자랑거리인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에서 남녀노소 막론하고 가장 인기 있는 관광 상품인 화성열차가 수원의 대표적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계 상품으로 거듭났다. 화성어차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여 시범기간을 거친 뒤 현재 활발하게 운영을 시작했다. 가을시즌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는 화성어차는 기존의 화성열차와 생김새는 물론, 이동 노선과 예매 시스템까지 많은 부분에 변화를 꾀하고 있다. 지금부터 화성어차의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자.



변경 전

변경 후

화성어차의 디자인

기존의 화성어차는 임금의 이미지와 힘찬 구동력을 상징하기 위해 용의머리를 형상화하고, 관광객들이 앉는 객차 모습을 임금이 타던 가마를 형상화한 모습이었다. 한편 변신을 거듭한 화성어차는 용의 머리를 떼고 좀 더 디테일한 모습을 살려 앞부분을 임금이 타고 다니던 어차의 형상으로, 또 뒷부분은 임금이 타고 다니던 가마의 형상으로 재정비되었다.

전국의 많은 관광지에서 열차를 운행하지만 화성어차만큼 외관의 디테일에 신경을 쓴 열차를 보기는 어렵다. 그만큼 디자인에 자신 있는 화성어차에 올라 직접 옛날 그 시대의 임금이 된 기분으로 수원화성을 둘러본다면 정말 흥미로운 경험이 되지 않을까?

화성어차 노선

기존의 팔달산과 연무대를 왕복으로(편도이용 가능) 운행하며, 중간 몇몇의 정류장을 승차가 아닌 하차로만 이용하던 노선과 달리 새롭게 바뀐 노선은 총5개소(예정)의 거점 정류장을 더 두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원하는 곳에서 하차 가능하도록 서틀형 열차로 변경할 계획이다. 편도로 약 3.2km 정도의 이동거리는 순환형으로 5.8km 정도로 연장되며 기존 노선에서 팔달문과 수원의 명물 통닭거리 및 전통시장(지동시장·영동시장·못골시장·미나리광시장) 등을 둘러볼 수 있게끔 바뀐다고 한다. 이로써 수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수원화성은 물론, 수원의 더 많은 명소에서 다양한 체험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화성어차의 역할이 더욱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노선과 연장된 새로운 노선을 한눈에 비교 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준비해 봤다. 이 이미지를 참고하여 수원화성을 관람하는데 좀 더 용이하도록 화성어차를 적극 이용해 보길 바란다.

※ 순환형 운행은 현재 적용이 되지 않고 있으며, 조만간 시행을 위해 시범 운행 중이라고 한다.

화성어차 예매 시스템

화성어차 이용에 있어 가장 불편했던 점으로 기존의 예매 시스템을 꼽을 수 있다. 사전 예약 불가로 무조건 현장 발매만 진행해서 이용객이 많은 주말 같은 경우엔 실시간으로 매표 상황을 모른 채, 힘들게 매표소를 찾아도 표를 구매할 수 없었던 부분도 보완했다. 바로 사전 예매시스템 도입이 그것이다. 하루 12회 운행 계획인 화성열차 중 오전에 집중된 단체관광객을 위한 1~2회차를 제외하고, 3~12회차는 사전예약 30%, 현장판매 70%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렇게 효율적인 매표 시스템을 구축하여 화성어차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증대시켜 많은 관광객들이 수원화성을 보다 많이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

※ 사전예매 시스템은 현재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으며, 내년초의 시행을 목표로 테스트 중이라고 한다.

그밖에 달라진 점

객차의 의자가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후방 배열로 되어, 부지불식간의 사람들과 무릎을 맞대고 화성열차를 이용하는 민망한 상황이 종종 연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될 듯하다. 화성어차의 모든 좌석이 전방배열로 이루어져 좀 더 편하고 안락한 탑승이 되었다는 소식이다.

또한 모든 객차에 창문이 없어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날씨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봄과 가을의 관광객들에 비해 이용객수도 적고, 불편함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새롭게 바뀌는 화성어차는 모든 객차에 탈부착이 가능한 창문을 설치하여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탑승이 가능 하고, 객차에 시트열선과 선풍기를 부착하여 한 겨울과 한 여름에도 기존 화성열차보다 관광객들에게 더 나은 관광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화성행궁



수원화성홍보관



화성어차 루트 내 가볼만한 명소 소개

화성행궁 사적 제478호, 평상시엔 관아로 이용되다가 임금이 지방에 행차 시 거처로 머물던 궁궐. 정조대왕의 모친인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이 열렸던 궁중 문화의 산실. 1996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극의 촬영명소이자 무예24기 시범공연, 장용영 수위익식 등 관광객들을 위한 전통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궁내에는 전통복식 체험 및 전통공예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제공하고 있다.

화성홍보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정보를 관광객에게 알리고 수원화성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리는 공간. 지하에 있는 영상실에서는 수원화성에 관한 3D입체 애니메이션을 상영하고 있다.

전통시장 200년의 역사를 가진 수원의 전통시장은 수원화성 주변에만 9개의 전통시장이 모여 있는데, 특히 팔달문 시장과 영동시장은 정조대왕이 만들었다고 해서 ‘왕이 만든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지동시장은 순대로 유명한 영동시장은 한복과 의류 등이 유명하다. 이러한 전통시장들의 다양한 상품과 먹거리, 축제와 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지며 하나의 문화공간이 되었다.

통닭거리 새롭게 떠오른 수원시의 명물. 옛 방식 그대로 대형 가마솥에서 튀겨지는 통닭은 수원화성과 전통시장을 잇는 명소가자 수십 년간 쌓은 옛 추억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곳이다.

평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복세
통을 이룬다. 통닭을 시키면 떡집과 닭발을 서비스로 주는 훈
훈한 인심도 맛 볼 수 있다.

공방거리 수원의 인사동이라고 불리는 공방거리는 화성행궁과 팔달문 사이에 공예품점과, 맛집, 찻집 등이 모여 있는 특

화거리로 다양한 체험거리가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비즈공예, 리본공예, 미니어치체험 및 각종 특색 있는 군것질거리로 다채로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수원화성박물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과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건립된 박물관으로, 모형 등 관련 유물을 통해 수원화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유익하고 재미있는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 화성행궁 광장 옆에 위치한 현대적인 건물의 미술관. 옛 건물인 화성행궁과 연계해 과거와 현재의 유기적인 만남을 경험할 수 있다. 5개의 전시실과 교육실, 카페테리아 등의 시설이 함께 설치되어 있으며, 전시 이외에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과 가까이 소통하는 미술관을 지향하고 있다.

수원화성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던 어제의 화성열차와, 새롭게 오늘과 미래를 달려줄 화성어차를 응원한다. 더불어 화성어차 운전자 분들의 안전 운행을 기원하며 글을 마친다. 🏠

화성어차 이용안내

이용료 어른 3,000원. 군인 및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000원 (20인이상 단체할인 20%)
장애인 및 65세 이상은 50% 감면

문의처 연무대 매표소 : 031-228-4486 / 화성행궁 어차 매표소 : 031-228-4683
눈·비오는 날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 티켓에 표시된 시간이 지나면 환불 불가 합니다.

※ 2016년 11월 현재 화성어차의 현재모습이며, 위 내용은 재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수원문화재단 화성마케팅부 화성운영팀 (031-290-3623)

Enjoy the **Suwon Hwaseong Fortress**
on the New **Hwaseong Tourist Trolley!**

Written by Kim Youngeun

Suwon boasts itself as a historic and cultural city. Suwon's proud World Cultural Heritage, the Suwon Hwaseong Fortress, is now redesigning its most popular Hwaseong Tourist Trolley to allow everyone to be connected to Suwon's traditional markets and to promote the markets as well.

Starting this fall, the Hwaseong Tourist Trolley is transforming itself by adopting a booking system, among other new features, to enhance the experience of the tourists.

These are some of the new features of the Hwaseong Tourist Trolley that will certainly attract the attention of the tourists.



Design of the Hwaseong Train

In the old tourist train, the dragon’s head symbolizes the king's prestigious image and powerful drive, while the cars symbolize the king's palanquin. In the new train, the dragon’s head will be replaced by the detailing of the king's wagon, and the rear side will be replaced by the king's palanquin. Among many tourist trains operating nationwide, the Hwaseong Train is unrivalled in its detailed design. You will feel like journeying back into the past like a king.

Route of the Hwaseong Train

The existing route covers shuttling between Paldansan and Yeonmudae (one-way travel is available), with a few stops allowed only for disembarking. The new route, however, will feature seven hub stops (planned) with a shuttle service, which will allow you to embark and disembark any place and any time. The current 3.2 km one-way travel distance will be extended to a circulation-type 5.8 km distance, and will allow you to tour around Paldalmun, Suwon's famous sightseeing attractions in Tongtak Street, and other traditional markets (Jidong Market, Yeongdong Market, Motgol Market, and Minarigwang Market). As such, the new Hwaseong Train will allow tourists to not only tour the Suwon Hwaseong Fortress, but also have an easier and broader experience of Suwon's many sightseeing destinations. The following map compares the old and new train routes to allow you to enjoy the Hwaseong Train and appreciate the fortress better.

- Circulation-type is not available yet, but it is on a test-operation.

Hwaseong Train Booking System

The old train's booking system was somewhat inconvenient. Booking services were not yet allowed, and only on-site ticketing service was available, thus inconveniencing visitors especially on weekends, when there are many visitors, leaving some of them unable to buy tickets. Thus, a booking system will be adopted. Of the 12 daily frequencies of the Hwaseong Train, only the first and second rides will have a ticketing

service to cover large groups of tourists in the morning, but the third through twelfth rides will offer 30% booking and 70% on-site ticketing services. The fare is KRW 3,000 per person, but a discount will be given to group tourists (20 or more people) and the elderly (65 years old or older). The booking system will boost the user convenience of the Hwaseong Train, thereby attracting more visitors to the Suwon Hwaseong Fortress.

- Booking services is not available yet, but will be open on next year, 2017.

Other New Features

In the old Hwaseong Train, the chairs were set up to face each other, with the exception of some chairs, causing inconvenience, such as the passengers’ discomfort of continuously facing strangers during the ride. However, in the new train, all seats will be facing the front, giving you a more convenient and comfortable ride. Furthermore, in the old Hwaseng Train, all car windows remained closed, exposing passengers to the summer heat and the winter cold, attracting fewer tourists compared to the number of visitors in the spring and in the fall, and causing much inconvenience in general. In the new Hwaseong Train, car windows can be opened or closed, giving riders a more pleasant environment. Also, cars will be installed with seat heating lines and fans, providing more comfort to tourists in the cold winter and in the hot summer.

Sightseeing Destinations through Riding the Hwaseong Tourist Trolley

Hwaseong Haenggung Palace Designated as Historical Site No. 478. The palace was designated as a government office, but it became the official residence of the king whenever he visited and toured the town. It features the palatial culture center where the 60th birthday party for Lady Hyegyeonggung Hong, the mother of King Jeongjo, was held. With renovation work ongoing since 1996, the palace also presents diverse locations for historical TV dramas,

demonstrations of the traditional 24 martial arts, and the Jangyongyeong Royal Guard ceremony, among other traditional events. It also presents various experiential events, including trying on traditional costumes and making of handicrafts.

Hwaseong Publicity Center It provides tourists information on the World Cultural Heritage, the Suwon Hwaseong Fortress, as well as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of the fortress. The underground theatre shows 3D animations of the fortress.

Seongsinsa Shrine Nestled at the middle part of Mt. Paldalsan, the shrine is said to have been built at the order of King Jeongjo, and it used to enshrine the Suwon Hwaseong guardian god.

Traditional Markets Throughout its 200-year history, there have been nine traditional markets surrounding the Suwon fortress alone. In particular, the Paldalmun Market and the Yeongdong Market are said to have been established upon the order of King Jeongjo, leading them to be named as the King’s markets. Jidong Market is famous for its Sundae (Korean sausage), while Yeongdong Market is known for its traditional Korean costumes and clothing. These traditional markets feature diverse products, foods, festivals, and events, thus forming a unique cultural space.

Tongdak Street It is a newly emerging sightseeing attraction of Suwon. The street specializes in chicken dishes that are cooked using the traditional method, involving the frying of chicken in a large pot, and it has become a famous sightseeing destination that connects Suwon Hwaseong and other traditional markets. Visitors may feel nostalgic, tracing back many decades.

The street is full of visitors during weekdays, and is overcrowded on weekends. Fried chicken dishes are served together with special, mouth-watering gourmet gizzard and feet dishes.

Workshop Stree Called Insa-dong (in Seoul) of Suwon, the Workshop Street, located between Hwaseong Haenggung and Paldalmun, features artifacts shops, eateries, cafes, etc., allowing visitors to experience diverse leisure choices. The street also features beads artifacts, ribbon artifacts, miniature experiences, and various delicious snacks. Suwon Hwaseong Museum The museum aims to widely publicize the World Cultural Heritage, the Suwon Hwaseong Fortress, and Korea’s cultural superiority. It features historical relics to boost the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and the culture of Suwon Hwaseong, and to have useful and fun cultural experiences.

Suwon Ipark Museum Located at the plaza in front of the Hwaseong Haenggung Palace, this modern museum of art symbolizes the meaningful encounter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in connection with the old Hwaseong Haenggung. It houses I5 galleries and classrooms, a cafeteria, etc. Other than exhibitions, the museum provides diverse activities to familiarize citizens with the local arts and culture.

The new Hwaseng Train, with its additional features, will certainly enhance the Suwon Hwascong visitor experience. We also wish Hwaseong Train passengers a safe ride. 🏠

Information

- **Fare**
Adult 3,000won, Adolescent 2,000won, Child 1,000won (20% discount for a group)
- **50 % free**
One who has the patriot certificate or the disability registration card and the elderly who are 65 and over
- **Contact information**
Yeonmudae ticket center 031-228-4486
Hwaseonghanggung trolley ticket center 031-228-4683

- ※ The trolley does not run on rainy or snowy day
- ※ Please understand that the above-mentioned contents may still change, depending on our internal circumstances.
- ※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the Hwaseong Operation Team, Hwaseong Marketing Department of the Suwon Cultural Foundation (031-290-3623)

칠보산의 보물이 뭐냐고 묻거든

글 박설희 시인 그림 청운

소요하기 좋은 곳

큰 마음 먹지 않아도 발길 닿는 대로 가다보니 산이 나오고 등산복이나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오를 수 있으며 삼십 분, 한 시간, 반나절, 원하는 만큼 머물 수 있는 곳. 칠보산은 숨이 턱까지 차오르게 속도를 낼 일도, 제 체력을 시험할 까닭도 없다. 그저 오르고 싶으면 아무데서나 오르고, 내려가고 싶으면 십 분 안에 내려갈 길이 나타난다. 한 마디로 소요하기 좋은 곳이다. 광교산이 수원, 의왕, 용인에 폭넓게 걸쳐 있어서 수원 시민뿐 아니라 인근 도시에서도 등산객들이 꽤 많이 모여드는 곳이라면, 칠보산은 서수원에 삶의 기반을 둔 사람들이 주로 찾는다. 원래 화성군 매송면에 속해 있었으나 1987년 수원시에 일부가 편입되어 수원시 당수동·호매실동·오목천동과 화성시 매송면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그냥 오늘 시간이 조금 여유롭다 싶으면 낯자, 산자락으로 슬슬 다가가다 보면 어느새 벌써 산에 들어 서 있다. 산과 산

아닌 것의 경계는 없다. 산은 인가로 내려오고 내려온 산을 이끌고 사람들은 산으로 간다. 칠보산 안내도에 보면 8코스까지 있는 걸로 나오는데 오목천동부터 당수동 칠보약수터까지 중주 코스라 해도 7킬로미터니 두 시간이면 넉넉하고, 최단 코스는 왕복 1킬로미터가 채 안 된다. 전망대 세 곳과 약수터 두 곳이 있다.

오늘 나는 용화사 쪽에서 올라가기로 한다. 용화사 코스는 칠보산 전체 코스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코스이기도 하다. 주차하기 편하고 깨끗한 화장실이 있으며 주변에 먹거리촌이 형성돼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음식점 중에는 맛집이라고 소문난 집도 여럿 있다.

자목마을을 거쳐 칠보맷돌 화장실을 지나면 주차장이 있다. 거기에서 용주사의 말사인 용화사로 향한다. 약간 어수선한 느낌을 주는 절 입구를 지나 조그만 계단을 오르니 너른 마당이 펼쳐지고 정면에 대웅전이 자리잡고 있다.

용화사 돌부처와 대웅전

우선 염주나무 아래로 가서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는다. 이곳은 편안한 마음으로 고즈넉한 경내를 둘러볼 수 있는 최적의 공간으로, 소설을 쓰는 후배가 처음 용화사에 왔을 때 주지스님이 알려준 곳이라 한다. 용화사 구석구석을 잘 아는 스님이 알려준 자리니 명당 자리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맞은편에 보이는 대웅전 처마의 양 옆은 휘늘어지고 가운데는 들린 멋스러운 모습이며, 가을 햇살에 잠기어 있는 고요한 뜰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일상의 번잡함을 잊어버릴 수 있다. 나는 올 때마다 이 자리에 꼭 앉아보는데 의자는 늘 비어 있고 염주나무는 조금 자란 듯 서 있으며 대웅전 처마는 여전히 정겹게 나를 맞아준다.

대웅전 안에는 머리에 광배를 두른 돌부처님이 후덕한 미소를 띠고 있는데, 전체적인 모습이 왼쪽으로 기울듯한 형상이다. 용화사에 처음 왔을 때에 금옷을 입은 부처님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법당을 들여다본 것인데, 약간 어두워 보이는 법당 안에 육중한게 서 있는 마애불을 발견하곤 깜짝 놀랐다. 그리고 이목구비나 옷주름이 섬세하지는 않지만 부드럽고 정겨운 미소와 전체적으로 소박한 모습에 반해버렸다. 그런데 이 돌부처님은 영험하기로도 소문이 나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있거나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뵙기도 한다는 것이다.

용화사 터는 1910년 이래 마을 사람들이 토속당산제를 겸하여 자그마한 당우를 지어 자목당이라 부르면서 공동관리해왔던 곳이라고 한다. 세월이 흐르면서 당우는 퇴락하기 시작했고 1969년 김귀동 스님이 수원에 살고 있던 선남선녀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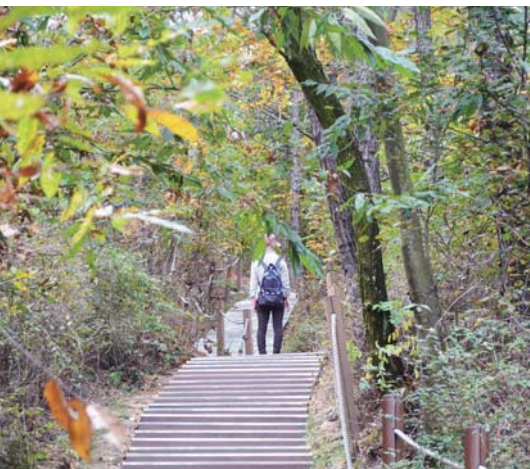
시주를 받아 대웅전, 산신각, 요사 등을 새로 지어 도량의 면모를 갖추었으며, 법당에 미륵불(彌勒佛)을 봉안하고 절 이름을 용화사(龍華寺)라 하였다. 용화사의 연원은 짧으나 저 부처님은 수백 년의 연륜은 돼 보인다.

고개를 드니 기둥과 처마 사이에 들어앉은 님이 보인다. 8개의 보물이 있어 팔보산으로 불리다가 황계(黃鷄)를 도둑맞는 바람에 칠보산(七寶山)이 되었다는 설화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황계를 다시 찾고 싶다는 간절한 염원이 담긴 걸까? 지금 몇 개의 보물이 칠보산에 묻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팔보든 칠보든 사람들은 산에서 각자의 보물을 찾아내고 그것을 가슴 속에 품고 내려갈 것이다.

대웅전을 등지고 바라보면 왼편으로 자비대전이 있고 금빛으로 찬란한 삼존불이 모셔져 있다. 자비대전 옆 벽면에 사마귀 한 마리가 붙어 있다. 가을이라 나뭇잎과 같은 갈색인데 수행 중인지 미동도 않는다.

거미와 나뭇잎과 아이들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와 산책로를 오른다. 가을산은 홀로 걸어가야 제 맛이다. 아니 혼자가 아니다. 새는 안 보이는데 새소리가, 물이 마른 계곡 어디선가 물소리가 들린다. 쓸쓸 우는 풀벌레 울음소리도 있다. 걷다 보니 왕거미가 제 왕국을 가을 햇살 아래 말리고 있다. 허공에 지은 집. 어찌자고 거미는 허공에 집을 짓고 제가 가진 걸 전부 보여주고 있는 걸까. 그 용감한 투명성은 무슨 자신일까. 몸 속에서 뽑아낸 가는 줄에 전신을 드러내놓고 전 재산인 벌레 몇 마리를 지키고 있다.



홀로 산행



개심사



무학사



용화사



용화사 돌부처



“내가 가진 건 이것밖에 없어요.”라고 커밍아웃하는 모양새다. 바람이 흔드는 대로, 비가 오면 비 몇 방울 수확해 보석처럼 펼쳐놓고, 증발하면 증발하는 대로 아쉬울 게 없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거미는 길쌈을 잘 하는 여인이었는데 교만한 죄로 벌을 받아 거미가 되었다고 한다. 과욕과 교만으로 파멸에 이르는 인간에 대한 경계는 동서고금이 따로 없다.

하늘 가득 우거졌던 나뭇잎들은 이제 나무의 발등을 덮으며 겨울을 준비하고 있다. 평생 서로 마주칠 일 없는 이파리들이 비로소 가지에서 놓여나, 너니 나니 주장하지 않고 편안히 섞이고 있다. 이곳에 자생하고 있는 야생돌배나무·참나무·물감나무·오리나무·아카시아나무·싸리나무·진달래·노간주·팔배나무 등 겨울을 앞두고 빈 손이 되어 먼 길을 떠나려는 나무의 결단이 낙엽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진다. 바스락바스락 지난 여름의 뜨거움을 전해주고 있는 이파리들, 곧 겨울이 닥치고 온 산이 텅 빈 모습일 때 이 길에도 눈꽃이 필 것이다. ‘눈꽃이 아름다운 12대 명소’ 중 하나로 용화사와 그 뒷산이 꼽힌 걸 본 적이 있다.

고갯마루에 오르니 제3전망대, 제2전망대, 원평리로 가는 갈림길이다. 수원둘레길 6색길이라는 보라색 표지가 있다. 6색길은 수원 8색길 중의 하나로 기존의 광고산길, 칠보산길, 원천리천길, 영통의 경계 등을 연결해 수원의 경계를 둘러볼

수 있는 길이다. 총 60.6km라는 데 칠보산 능선이 그 중의 일부인 것이다.

오른쪽 제2전망대 쪽으로 걸음을 옮긴다. 능선에 있는 바위들이 우람한 근육을 드러내고 있다. 제2전망대에서 원평 쪽을 바라보니 어천저수지와 건달산이 보인다. 수원 쪽은 멀리 광고산이 보이고 서수원 일대가 그림처럼 펼쳐진다. 호매실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다. 상촌마을과 엘지빌리지아파트, 입북·당수동 일대 아파트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삼십 년 전쯤에는 논밭이 대부분인 농촌 마을의 정경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나무의 성장보다 더 빠른 게 아파트의 성장이다.

조금 더 걷다 보니 239미터라는 표지석이 있는 칠보산 정상에 나타난다. 정상이되 나무들이 시야를 막고 있어 조망할 수가 없다. 가운데에 소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고 그 나무를 빙 둘러서 의자가 놓여 있다.

숲속에서 모습이 보이기도 전에 덤불숲 참새처럼 소리로 먼저 다가오는 아이들.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야외학습을 나온 모양이다. 선생님이 “노란 색깔 찾아보자”고 하자 아이들은 노란 색을 찾으려고 분주하다. 제일 먼저 찾은 아이가 훈장 내밀 듯 자랑스럽게 손을 내민다. 아이들은 각자의 색깔을 찾으며 영글어 갈 것이다.

칠보산의 보물이 뭐냐고 묻거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쫓지는 않는다

사람을 끌고 가다가 문득
벼랑 앞에 세워 낭패시키는가 하면
큰물에 우정 제 허리를 동강내어
사람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중략)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해서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그늘을 드리워 사람들이 땀을 식히게도 한다

신경림 시인의 「길」을 생각하며 걷는데 진한 솔향이 몸속에 들어온다. 솔잎이 폭신하게 깔려 있다. 칠보산 일대는 1928년부터 리기다소나무를 집중적으로 심어 서울대 칠보산학술림으로 지정되었고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사실 칠보산은 산의 크기에 비해 식생이 풍부한데, 야생화 애호가들에게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산이다. 계곡에는 수도권에서 보기 힘든 처녀치마가 군락을 이뤄 봄에 보라색의 예쁜 꽃을 피운다. 또 칠보산에서 최초로 발견되어서 칠보처녀치마라고 이름 붙여진 식물이 살았던 곳이기도 하다.

잠시 머리를 식힐 겸 걷기 시작한 것이 어느덧 두 시간 가까이 돼 간다. 시간이 언제 이렇게 흘렀을까. 오늘 나는 목적을 가지고 걷기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 내려가기로 한다. 지척에 제1전망대와 칠보산 명물인 가즌바위가 있지만 다

음 기회로 미뤄야겠다.

무학사 방향으로 내려오다 보니 ‘생태습지구역’이라 써 있는 팻말이 있고 울타리를 쳐놓아 사람들의 출입을 금하고 있다. 칠보산 곳곳에 이런 자연습지가 있어 끈끈이주걱, 통발 등 습지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보호구역에는 희귀한 해오라비 난초도 있고 천연기념물인 소쩍새와 붉은배새매 및 희귀조인 청호반새도 있다고 한다.

무학사 입구엔 ‘숲속의 도서관’이라고 명명된 책이 가득 꽂힌 유리부스가 있고, 그 옆에 널따란 정자가 있어 오가는 사람들의 쉼터가 되고 있다. 무학사 역시 오래 된 절은 아니지만 확 트인 조망과 굴 속에 마련된 참선실이 인상적이다.

상촌중학교에서 엘지빌리지아파트 단지 뒤쪽으로 가다보니 개심사라는 자그마한 절이 나온다. 이곳에도 늦게 찾아온 흰수국과 제철인 감국이 만발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게 한다. 가을의 산사는 어디를 가든 그윽하고 운치가 있다.

산자락의 발에서 속이 차가고 있는 배추며 무를 보니 내가 지은 농사처럼 풍요롭다. 생각해 보면 칠보산의 보물은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칠보산 자락에서 자라면서 칠보산을 마음에 담고 제 길을 간 사람들. 그들이 과욕을 부리는 것을 경계하는 마음에서, 바위에 묻힌 보물을 욕심 낸 석공이 가즌바위를 훼손했다가 죽는 ‘가즌바위 전설’이나 황계를 흠치려다 벌을 받는 ‘칠보산 전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것일 게다. 🍂



박설희 시인은 화성에 반해 수원으로 이사와 이십 년 가까이 살고 있다. 2003년 계간 『실천문학』 신인상을 받았으며 시집 『쪽문으로 드나드는 구름』이 있다. 강의와 글쓰기를 하는 틈틈이 힘닿는 대로 여행을 한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수원



스페인의 빌바오에서

‘도시재생’의 새로운 지평을 생각하다

글 변청자 미술학박사, 경기대 외래교수



‘빌바오 효과(Bilbao effect)’, ‘해체주의(Deconstructivism)’,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과 같은 시대적 화두를 이야기할 때 언제나 주목하는 것이 바로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Guggenheim Museum Bilbao)이다. 빌바오 효과는 한 도시의 건축물이 랜드마크라는 상징적 가치를 넘어 그 지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나 현상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도시를 물리적 공간이면서 동시에 살아있는 유기체로 바라보게 하는 인식의 전환을 이끌고 있다.

빌바오는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수도이자 투우의 도시인 마드리드(Madrid), 1992년 올림픽 개최지이자 프로축구로 유명한 바르셀로나(Barcelona), 엑스포를 개최한 세비아(Sevilla), 알함브라 궁전을 품고 있는 안달루시아의 주도 그라나다(Granada)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곳이었다.

그런 빌바오가 세계인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을 유치한 1991년부터이다.



전시를 관람 중인 사람들

네르비온 강변(Nervion River)에 위치한 빌바오 구겐하임은 스페인 북부의 바스크 정부가 1980년대에 시작한 도시경쟁력 회복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되었다. 대서양으로 이어지는 해상교통의 요충지이자 풍부한 철광석 매장량을 자랑하는 빌바오는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철강, 조선, 무역의 중심지로 스페인에서는 비교적 부유한 공업도시였다. 그러나 1970년대 말에 불어 닥친 세계 경제 위기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이어 한국과 같은 신흥 산업국에게 조선 강국의 지위를 내어주면서 도시는 급격하게 쇠락하기 시작했다. 중공업 위주의 산업 구조로 인한 환경오염과 다양성의 상실, 기업의 붕괴와 폭증하는 실업으로 인해 도시를 떠나는 사람들이 속출하면서 빌바오는 쇠락과 변화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그에 더해 1983년 대홍수로 인해 폐업한 조선소와 공장 그리고 산업폐기물이 흉물스럽게 밀집한 오염된 항구 도시 대부분이 침수되면서 복원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복구를 넘어 살기 좋은 곳이어야 한다.’는 단순하면서도 원론적인 관점에서 1985년에 법률가, 건축가 등 민간전문가 15명이 주축이 되어 ‘빌바오도시재생협회’를 설립하였다. 1987년에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1991년 바스크 자치정부가 유럽에 새로운 미술관 건립을 계획 중이던 미국의 구겐하임 재단에 미술관 건립을 제안하였다. 협약을 통해 시는 물리적 공간과 장소성이라는 미술관의 성격을 구축하고, 재단은 미술관의 콘텐츠인 운영 프로그램과 전시물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명설계 공모를 통해 프랭크 게리(Frank O. Gehry)를 건축가로 선정하였다. 그는 도시의 지역 정체성을 상징하는 철강과 항구라는 두 가지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입구. 미술관은 건축가 프랭크 게리의 설계로 지어졌다.

요소에서, 티타늄이라는 소재와 물고기가 물속을 헤엄치며 움직이는 모습과 같은 비정형의 독특한 형태를 찾아냈다.

미술관 건립은 신공항과 새로운 지하철 개통, 오페라하우스와 컨벤션센터, 네르비온 강 양쪽을 잇는 다리 건설 등과 연계되면서 주거와 문화와 상업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복합적인 도시재생의 중심축이 되었다. 강 건너 동쪽에는 주거공간이 들어섰고, 미술관의 전면인 남쪽은 옛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외곽지대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다리가 관문처럼 지나간다. 북쪽은 산책로를 따라 공원지역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이 있다.

한 달 여 기간의 유럽여행 중 마지막 방문지인 빌바오 구겐하임으로의 여정은 로마에서 바르셀로나를 거쳐 시작되었다. 약 10시간의 야간비행과 공항에서의 대기로 몸이 녹초가 될 즈음 들어선 빌바오 공항의 첫인상은 ‘산뜻함’이었다. 이태리의 번잡함을 경험하고 난 다음이라 그렇기도 하겠지만, 사선으로 흘러내리며 낮아지는 천정에서 드러나는 수평 공간의 아늑함 때문이기도 하다. 키타레버 구조가 만들어 내는 가로줄 무늬의 규칙적 배열, 격자무늬 유리창이 만들어내는 단순함이 차분함과 편안함을 자아낸다. 스페인 출신의 세계적 건축가인 산티아고 칼라트라바(Santiago Calatrava Valls)의 스페이스-프레임 구조의 건축미가 잘 구현된 곳이었다. 공항에서의 인터페이스 역시 단순하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공항의 가장 오른쪽으로 나가자 도심으로 진입하는 비즈카이비스 정류장이 나타났다.

시대로 들어가는 버스를 타고 10여 분이 채 지나지 않아 다니엘 뷔랑(Daniel Buren)의 〈붉은아치 Arcos rojos〉가 마치

도시 관문처럼 서 있는 살베 다리(La Salve Bridge)가 등장하더니 미처 눈을 돌릴 새도 없이 이질적인 재질의 거대한 덩어리(mass)가 옆을 스쳐 지나간다. 빌바오구겐하임이다!

아차 하는 순간 미술관이 내 뒤로 물러나고 있었다. 급하게 버스에서 내려, 오던 길을 되돌아 모퉁이를 돌아서자 제프 쿤스의 〈퍼피 Puppy〉와 길게 늘어선 사람들이 이곳이 미술관임을 알려준다. 입체파 화가인 피카소의 큐비즘 회화를 3차원의 현실 공간에 구현하기라도 하듯 미술관은 포개지고 겹쳐지면서 발길이 머무는 각각의 위치마다 다른 모습을 드러낸다.

도심 어느 방향에서나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두 개의 출입구 중 도심에서 진입하는 남쪽 출입구는 광장을 거쳐 하강하며 좁아지는 계단 끝에 있다. 바다 생물의 거대한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지면 아래로 나 있는 계단을 따라 미술관 입구에 들어설 때까지 이 거대한 미술관 뒤에 무엇이 있을지를 가늠하기란 쉽지 않았다. 다만 오랜 기다림 속에서 한 발 한 발 다가서자 곡면을 이루는 3만 여장의 티타늄 패널과 스페인 전통 석재인 라임스톤, 유리와 철골이 만들어 내는 기묘한 무채색의 조합이 사계절 내내 꽃으로 옷을 갈아입는 〈퍼피〉의 알록달록한 색채의 향연과 대조를 이룬다.

32,500㎡의 대지 위에 최고 55m 높이의 3개 층으로 이루어진 총 24,000㎡의 미술관 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곳이 건축가 프랑크 게리가 ‘꽃(The Flower)’이라고 부르는 아트리움이다. 1층부터 3층까지 통으로 개방되어있는 이곳은 유리로 되어 있어 미술관 내부와 외부, 위와 아래를 하나로 연결하는 개방공간이자 동심원의 날개처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19개의 갤러리를 연결하는 공적 소통 공간이다. 이

곳에는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미국의 개념미술가 제니 홀저(Jenny Holzer)의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을 위한 설치 Installation for the Guggenheim Museum Bilbao〉가 설치되어 있다. 관객은 LED 패널에서 벽으로 흘러넘치는 짧고 명료한 텍스트 사이로 넘나들면서 그녀가 제시한 현대사회의 가치에 주목하게 된다. 11,000㎡의 전시공간은 석재로 마감한 10개의 사각공간과 티타늄으로 마감한 9개의 비정형 곡면 공간으로, 면적과 높이를 달리하면서 여러 방향으로 뻗어 있다. 각각의 갤러리에는 윌렘 드 쿠닝·마크 로스코·앤디 워홀·리히텐슈타인·올덴버그·리처드 세라·프란시스코 클레멘테·안젤름 키퍼 등 추상표현주의·팝아트·미니멀리즘·개념미술·신표현주의 등 20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현대미술가와 바스크와 스페인 출신의 지역예술가의 작품이 함께 전시되어 있다.

지면보다 16m 낮은 강변으로 나 있는 북쪽 출입구에서부터 미술관을 에두르며 강 위로 산책로가 연결되어 있고, 그 길을 따라 애니쉬 카푸어의 〈큰 나무와 눈 Tall Tree and The Eye〉, 제프 쿤스의 〈튤립 Tulips〉, 루이스 부르주아(Louis bourgeois)의 〈마망 Maman〉이 설치되어 있다.

현대미술의 맥락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상설 전시 이외에도 앤디 워홀의 〈그림자 Shadows〉나 루이스 부르주아의 특별전과 같은 멋진 전시를 관람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렇지만 이번 방문에서 느낀 가장 중요한 것은 미술관 건립이란 멋진 건축물을 짓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얼마나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생산해 낼 수 있는가,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곳인가 하는 점에 있음을 절감했다. 지역사회가 그 안에서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자발적 참여와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둘 때, 이를 통해 형성된 ‘지역성’(Locality)이야말로 세계인이 찾아오고 싶고 경험하고 싶어하는 세계화(Globalism) 시대의 지속 가능한 미래동력일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연간 사업 하나와 미술관의 안내문 표기 방식이 눈에 띄었다. ‘Learning Through Art’는 매년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6세에서 12세 학생의 작품을 선정해서 전시하는 것이다. 교육과 전시를 연계 진행하여 지역사회에 예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긍심을 심어줌으로써 미래 문화 동력 양산을 지속하고 있었다. 또한 모든 안내문은 바스크어, 스페인어, 영어 순으로 표기하는데 이는 비단 미술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에서 시행되고 있었다. 언어는 단순한 표현 도구가 아니라 의식의 밑바탕을 이룬다는 점에서 자기언어를 소중히 여김으로써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지역 정체성의 형성과 유지에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 내고 있었다.

빌바오구겐하임은 처음부터 상업적 성공을 목적으로 건축한 것은 아니지만 1997년 10월 개관 이후 한 달 만에 13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와 건축비 1억 달러를 단숨에 회수하였고, 한 해 100만 명 이상이 찾아오면서 2007년 기준 2조 1000억 원의 경제 효과를 산출했다. 현재 런던의 테이트모던, 파리 루브르박물관과 더불어 유럽에서 3번째로 연회원이 많은 미술관이 되었다. 이것은 과거 도시의 영광을 견인했던 철에 대한 관점을 ‘산업’에서 ‘문화’로 바꾸면서, 그것을 통해 도시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자치 정부와 시민들의 도시 재생에 대한 의지는 물론 구겐하임 재단의 전문 운영 능력의 조합이 만들어낸 융합의 산물임을 다시 생각해 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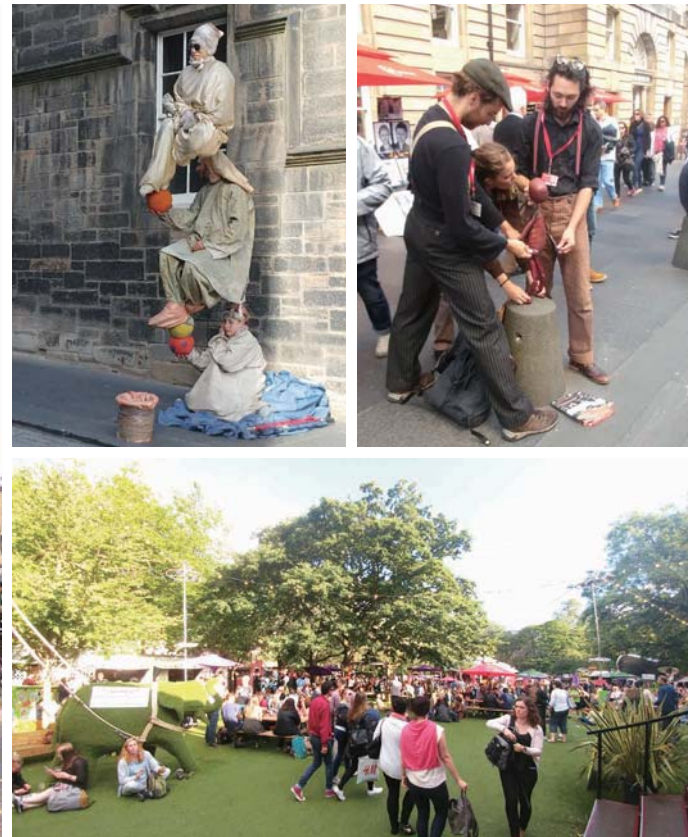
변청자 미술학 박사로 대학에서 예술학, 미학, 미술사, 현대미술 및 문화경영에 관해 강의하면서 미술비평가이자 문화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다.



영국 에든버러 거리



에든버러 킹스 극장



에든버러 축제

전쟁의 아픔을 축제로 승화하다

Edinburgh 영국 에든버러 글 이형복 예술창작팀장

지난 8월 영국 에든버러의 하늘은 '화창' 그 자체였다. 올 여름 찌는 듯한 더위를 뒤로하고 찾은 영국. 그러나 청명한 우리나라 가을 날씨와 같은 영국에 도착한 후 더위는 사라지고 밤기운은 서늘함마저 느껴졌다.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높지만 해류와 편서풍의 영향으로 기후가 온화하여 겨울에도 월평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다. 곳은 영국 날씨를 걱정하며 찾은 에든버러 축제 기간 동안 맑은 하늘과 더불어 세계 유수 축제 중 하나인 에든버러 국제 페스티벌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호기심과 설렘이었다. 에든버러 성(城)을 바라보며 '로열 마일거리'를 활기차게 홍보하는 시민과 관광객들. 오래된 건축물에서 풍기는 푸릇한 이끼 냄새. 문화 선진국으로 불리는 도시의 당당함. 영국연방이지만 독자적인 문화를 간직한 스코틀랜드의 주요도시 에든버러의 첫 느낌이었다.

에든버러 축제에 빠지다

에든버러 축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7년 유럽인들에게 가해진 전쟁의 상흔을 치유한다는 목적으로 시작한 이래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열리는 문화예술 축제로 자리 잡았다.

당시 영국 정부와 에든버러 시(市)의 후원을 받아 글라인드번(Glyndebourne) 오페라단 행정관이었던 루돌프 빙(Rudolf Bing)과 몇몇이 이 축제를 기획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에든버러 축제는 오페라·클래식 음악·연극·춤·비주얼 아트 분야에서 활약하는 여러 나라의 공연팀들을 초청하여 세계 최대의 공연 축제로 성장하였다.

매년 8월을 기점으로 한 달 남짓 진행되는 데, 공연 테마에 따라 100여 개의 공연이 무대에 올라간다. 공연은 더 허브(에든버러 축제센터)를 비롯하여 킹즈 극장·어서홀·퀸즈홀·에든버러 플레이하우스·로스 극장 등 9곳에서 이루어진다.

에든버러 축제의 백미는 군악대 연주(Military Tattoo)다. 에든버러 성 앞에서 펼쳐지는 이 화려한 공연에서는 스코틀랜드의 전통악기인 백파이프와 드럼을 둘러맨 군악대를 선두로 세계 각 나라의 군악대들이 음악 퍼레이드를 벌인다. 축제기간 동안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밤 열리는 이 공연을 보기 위해 매년 에든버러를 방문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이다. 이 공연은 1950년 작은 규모의 부대행사로 시작되어 지금은 2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관람하는 주요 행사로 자리 잡았다.



1	2
3	4

1 2 에든버러 타투
3 에든버러 축제 기프트숍
4 에든버러 축제 홍보물

필자가 방문했을 때는 청소년으로 구성된 오토바이 곡예단과 인도·뉴질랜드·방글라데시·미국 등의 국악대가 참여했다. 절도 있고 짜임새 있는 행진과 집중의식 그리고 각 나라의 독특한 복장이 관람객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에든버러 성 앞에 설치한 대형 공연장은 규모면에서 눈길을 사로잡았다. 축구장 크기의 공연장 주변에 높다란 계단식 의자를 설치했는데, 세계문화유산인 이곳에 이처럼 현대적 구조물을 조성한 것이 이채롭다. 문화재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 활용하는 지혜를 엿볼 수 있었고, 더불어 성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가 전통과 현대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미처 티켓을 구매하지 못한 관광객은 공연장 입구에 터번을 쓴 암표상을 통해 옷돈을 주고 티켓을 구입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축제 '에든버러 프린지'

에든버러 국제 축제에서 공식적인 초청을 받지 못한 무명의 공연단체들은 프린지란 이름으로 에든버러 곳곳에서 크고 작은 공연을 펼친다. 어쩌면 이 공연을 보기 위해 찾는 사람이 더 많은지도 모른다. 여하튼 8월 에든버러에서 펼쳐지는 축제는 우선순위 보다는 다양함 속에 어루러지는 축제의 향연 그 자체이다.

굳이 무엇이 무엇이라고 구분 짓기 보다는 함께 어우러져 축제를 즐기고 참여하면 된다. '프린지(fringe)'의 뜻이 '주변'인 것처럼 프린지 페스티벌은 공식 초청공연으로 이루어지는 국제페스티벌과는 달리 자유 참가 형식의 공연으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부대 축제라고 할 수 있다.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는 해마다 수백 개의 공연 단체가 참가하여 수천 건이 넘는 공연을 진행하는 올해의 경우 3천여 공연이 열렸다고 한다. 공연 분야는 코미디극·음악·어린이극·뮤지컬·오페라·무용·신체극(무언극)·전시 등 다양하다.

참가 단체들은 공연장(임시공연장, 야외공연장 등)을 잡는 것부터 공연 홍보까지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추진한다. 이들은 에든버러 중심부인 로열 마일에서 즉흥 거리공연을 펼치거나 홍보활동을 펼치면서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띄우고, 최대의 볼거리를 제공한다.

자신들의 공연을 홍보하기 위해 무대 의상을 입고 거리로 나와 약간의 퍼포먼스를 선보이거나 전단을 돌리며 적극적인 홍보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조차 축제의 한 장면처럼 보인다. 이러한 행위에서는 나의 멋진 공연을 당신이 꼭 봐야만 한다는 당위성마저 느껴졌다.

여기다 공연기간 동안 교회와 맥주집, 갤러리 등은 공연장으로 탈바꿈한다. 오래된 건축물도 간단한 구조변경을 통해 소극장으로 변신한다. 익숙함이 던져주는 묵직한 울림일까. 공간의 재해석은 주행사장이라 불리는 우리나라 축제 현장과 견주어 볼 때 꼼꼼히 생각해 볼 문제이다.

축제의 도시 에든버러의 이모저모

스코틀랜드 인구는 잉글랜드의 10분의 1밖에 안되지만, 골프와 스카치위스키의 원조이자 민속악기인 백파이프와 타탄(tartan)으로 만들어진 전통의상 킬트 등 자신들만의 전통을 고유한 정체성으로 확립시킨 스코틀랜드인의 고집이 담겨 있다. 그러한 자부심이 여러 축제 형태로 재현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에든버러 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곳은 단연 에든버러 성이다. 바위산 위에 세워진 에든버러 성을 따라 올라가는 길은 중세 도시의 분위기로 가득하다. 애초 지어진 목적 자체가 군사 요새였기 때문에 궁전의 화려함보다 요새와 성이 갖는 견고하고 투박한 느낌이 인상적이다.

성 안 대연회장에는 과거 스코틀랜드 왕의 대관식 때 사용되었던 '운명의 돌'(The Stone of Destiny)이 전시돼 있다. 스코틀랜드 왕가의 상징인 '운명의 돌'은 700년 전 이웃나라 잉글랜드의 왕인 에드워드 1세에게 빼앗겨,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에서 분리된 이후인 지난 1996년에야 돌려받았다.

이러한 역사를 배경으로 에든버러에서는 1년 내내 공연이 펼쳐진다. 가히 축제의 도시답다. 가장 대표적인 축제로는 에든버러 국제 축제를 비롯해 에든버러 프린지·밀리터리 타투·드럼페스티벌·재즈페스티벌&블루스페스티벌 등 11개의 굵직굵직한 행사를 통해 연중 들쭉거린다. 🏰



젊은 안무가의 이야기 수원화성, 깨어나다

오래된 것이 주는 익숙함 속에서 다시 새로운 것을 발견해 내는 것.
연암 박지원 선생은 ‘법고창신, 옛것을 본받아 새것을 창조해 냄’의 정신을 말했다.
수원을 대표하는 ‘수원화성’. 늘 가까이 있어 익숙한 ‘수원화성’ 사대문이
젊은 안무가 오민경의 ‘MOON루 깨어나다’ 라는 전통창작무용으로 발표되었다.

글 박경홍 예술창작팀 사진 박김형준

오민경

수상 제 21회 전국무용제 경기도대회 연기상
제 18회 경기국악제 전통무용부문 2위
제 4회 창작무용가전 ‘아람아람치’ 안무상

주요안무작 2011 〈흔들리며 피는 꽃〉 / 2012 〈당신이 있기에〉 / 2013 〈1920년, 끝나지 않은 이야기〉
2014 〈나, 해석이아기〉 / 2015 〈어찌 우리 그날을...〉 / 2016 〈Moon루, 깨어나다〉

어느 맑은 가을 날 그녀의 작업실에서 진행한 인터뷰 중 ‘나는 욕심이 많다.’ 라고 당당히 말하는 그녀는
전통무용에 대한 젊음의 열정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여기 그 인터뷰 내용을 함께 공유해 보려 한다.

재단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민경 요즘 입시철이라 제자들 입시 준비 하느라고 바빠요. 취미반 학생들도 지도하고 있고요. 틈틈이 다음 작업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재단 바쁘게 지내고 계시네요.... 어떻게 무용을 시작하게 된 건가요?

민경 저는 부산에서 살다가 무용을 하고 싶어 수원으로 왔어요. 지금은 매탄동에 살고 있어요. 수원에는 중학교 때 왔는데 집안에서 무용하는 것을 반대해서 그 당시 언니가 살고 있던 수원으로 와 무용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114에 전화를 걸어 안내원에 게 수원에 있는 무용학원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때 제일 첫 번째 목록에 나오던 무용학원 번호를 받아 그게 인연이 되어서 무용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용학원이 ‘은하수 무용학원’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오늘의 저를 있게 한 시작이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재단 올해 재단에서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을 받아서 지원사업을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민경 처음에 재단에서 하는 지원사업설명회를 갔는데 다양한 지원 사업 설명을 듣다가 ‘문화예술발전기금’이라는 단어에 매료되었어요. 그런데 발전기금은 선정되기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용기를 내어 지원했는데 선정되어 너무 좋았어요. 첫 개인 안무 작품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구요. 기억하세요? 제가 사업설명회에서 질문도 많이 했어요. 그때 답변 많이 해주셨는데...(웃음)

재단 제가 그랬나요? 그날 질문이 하도 많아서...(웃음) 지원금액은 만족스러우세요?

민경 제가 상상했던 것을 무대에 올리려면 이번에 받은 지원금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웃음) 제가 좀 욕심이 많은 편이라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무용수도 최대한 많이 채우고 그래도 부족한 무대는 제가 직접 출연도 했어요.

재단 이번 지원 사업 제목이 ‘Moon루 깨어나다’인데 공연 이야기 좀 해주세요.

민경 “깨어나다.”는 말을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무엇이 깨어나는 것, 특히 사물이 깨어나면 어떤 형상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곤 했는데, 어느 날 수원화성을 바라보던 순간 수원화성이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때 그 형상을 스케치 하고 그것을 무용으로 표현했어요. 달이 뜨면 사대문이 사람처럼 깨어나 그들만의 축제를 여는 거지요.

재단 영화 ‘트랜스포머’의 자동차 같이요? 공연을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민경 달이 뜨면 수원화성의 사대문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깨어나는 것을 상상해서 표현했어요. 정적인 사물을 동적으로 이미지화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그 안에 스토리를 넣는 것이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관객들이 공연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상상 할 수는 무대를 만들어 주는 데 중점을 두고 안무를 구성했어요.

재단 저도 그날 공연 봤는데 관객들 반응 뜨겁더라고요. 주변에서 반응이 어때요?

민경 공연 아이디어가 좋았다는 평이 많았어요.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하지만 항상 늘 끝나고 나면 아쉬웠던 점부터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출연 무용수를 개인적으로 한 명씩 섭외해서 공연을 제작하다보니 아마 군무 파트의 연습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

요. 또 공연구성에 있어서 1부(창작무용)와 2부(전통무용) 연결이 매끄럽지 않은 느낌이 있었어요. 다음 작품을 구상할 때는 이런 점을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날 공연을 본 다른 아티스트 분이 같이 협업을 해보자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저한테는 또 다른 도전을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아요.

재단 수원화성의 사대문을 캐릭터로 만들어 공연을 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수원 화성의 사대문은 무엇인가요?

민경 저는 ‘화서문’이 좋아요. 이번 공연의 결정적인 아이디어의 시작이 ‘화서문’이에요. 다른 문들에 비해 작은 문이지만 ‘화서문’ 양옆에 성벽이 마치 승무의 장삼자락이 늘어진 모습 같아서 예쁜 여인의 모습 같더라구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지요.

재단 공연준비 시 에피소드가 있어요?

민경 공연 일주일 전 ‘화서문’을 공연할 여자무용수가 발목인대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차마 쉬라는 말도 못했어요. 결국 다친 발을 사용하지 않는 동작으로 다 바꿨어요. 그 무용수가 저랑 친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에게 아직도 많이 미안해요. 그래도 그만큼 많이 공들인 무대라서 그런지 관객들이 ‘화서문’ 공연장면을 많이 기억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재단 이번 공연에 출연한 무용수들은 수원지역 무용인들인가요?

민경 아뇨. 대부분 외부지역의 무용인이예요. 무용수를 섭외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운 점이었는데 수원에서 활동하는 젊은 무용인들이 많지 않아요. 주변 친구들도 주로 서울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구요. 수원이 각종 문화예술 행사가 많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지역 젊은 무용인들이 활동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몰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재단 그래서 그런가요? 지원 사업을 하면 상대적으로 무용분야의 지원이 좀 적은 편이기도 해요. 특히 젊은 무용인들의 활동이 좀 부진한 것 같기도 하네요.

민경 많이 없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젊은 무용인들을 모아서 ‘민댄스 무용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직 얼마 되지 않아 활동을 많이 하진 못했는데 앞으로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통해 수원 무용의 활기를 띄워보고 싶어요.

재단 요즘은 장르와 장르가 결합된 공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공연은 해보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민경 네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 무대를 좋아 하거든요.

한번은 합창무대에서 전통무용을 공연한 적이 있었는데 잊지 못할 무대 중 하나예요. 합창곡을 직접 들으면서 춤을 추는데. 춤을 추면서도 너무 좋아서 소름이 돋는 거예요. 남자 무용수랑 듀엣으로 3분 정도 공연했는데 관객들도 너무 좋아 하시고… 장르를 넘어선 관객과의 소통이랄까? 이런 공연은 저도 나중에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재단 춤추고 있는데 소름 돋을 정신이 있나요? (웃음)

민경 춤추고 있어도 관객들도 다 보이고 소름 돋을 정신도 있어요. (웃음)

재단 수원문화재단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민경 우선 지역의 젊은 예술인들, 특히 무용인들은 재단에서 이렇게 활발히 지역 예술인들을 위해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예술인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또한 젊은 예술인들의 정보도 교류하고 작업도 함께 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재단에서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단 앞으로의 계획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민경 전통의 맥을 이어가면서 젊은 전통무용인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것

은 저 또한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한국무용을 기반으로 작업은 계속 진행할 것이고요. 2017년은 안무가 ‘오민경’으로 활동도 좀 많이 하고 지원사업도 많이 선정되었으면 좋겠어요. 전 욕심이 많아요. (웃음)

재단 계획하신 일 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번 지원 사업 정산도 부탁드립니다. (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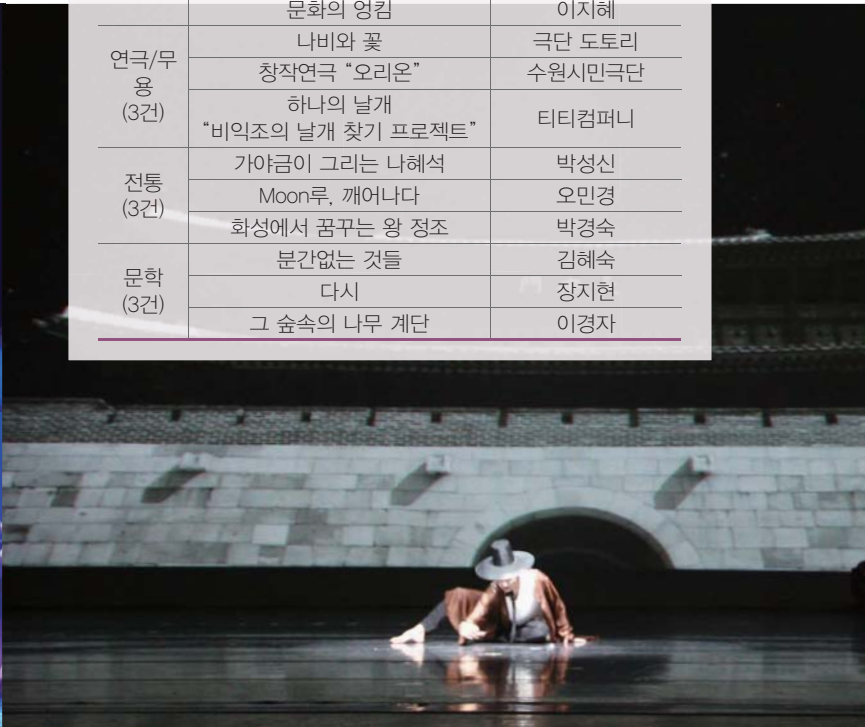
민경 정산 해야지요. 조만간 재단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웃음)

재단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지원사업

지역 전문 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자율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총17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분야	지원사업명	단체명(대표자)
음악 (3건)	창작악회 작품발표회	수원창작악회
	오페라 잔니스키키	수원오페라단
	모차르트 생애와 음악이 있는 해설음악회	경기심포니커
시각 (5건)	화수공담_2016	문화상회 다담
	지워진 기억, 남겨진 역사	세계문화유산교류 프로젝트
	21세기 수원화성 화첩 성곽길 따라 걷다	민족미술인협회 수원지부
	실험공간 UZ 프로젝트	슈룸
	문화의 영킴	이지혜
연극/무용 (3건)	나비와 꽃	극단 도토리
	창작연극 “오리온”	수원시민극단
	하나의 날개 “비익조의 날개 찾기 프로젝트”	티티컴퍼니
전통 (3건)	가야금이 그리는 나해석	박성신
	Moon루, 깨어나다	오민경
	화성에서 꿈꾸는 왕 정조	박경숙
문학 (3건)	분간없는 것들	김혜숙
	다시	장지현
	그 숲속의 나무 계단	이경자





2015 빈집기담_유유자족

“예술은 사회와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프로젝트 그룹 ‘번지’를 찾아서

글 고병선 시민문화팀 사진 박김형준

상강도 지나고 입동을 코앞에 둔 계절의 막바지.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에 여념 없는 ‘프로젝트 그룹 번지’(이하 번지)를 찾았다. 〈번지〉는 수원문화재단의 기획사업 ‘인큐베이팅 및 기획활동’에 선정된 문화기획자들의 모임이다. 이들이 기획한 ‘청년+기담(奇談) 프로젝트’는 이제 4개월의 긴 대장정을 마치고 자료집 발간 등 마무리 작업 단계에 접어들었다. 동시에 새로운 교육연구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프로젝트 그룹답게 〈번지〉는 언제나 진행형이다.

〈번지〉는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현장 중심의 예술 활동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가치지향을 실험하고 연구하고자 2012년 소모임에서 시작하여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번지〉가 내건 주요 연구와 기획테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와 일상의 삶에서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은 어떻게 가능한가’이다.

〈번지〉소속 작가들은 각자의 다른 작업 활동에 근간이 되는 동시대 예술의 비평 읽기와 작가 연구를 통해 개인의 작가적 역량을 향상하는

동시에 다양한 문화예술 현장에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 예술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문화예술의 주체로 성장할 청소년 대상의 문화예술교육활동을 함께 병행,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수원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그룹 〈번지〉. 2015년에는 ‘행궁동 플레이그라운드(PLAYGROUND)’를 통해 개인의 역사와 관계의 역사를 만들고, 지역과 참여자들 사이에서 관계 맺기와 그로 인한 유대의 확장을 통해서 우리시대가 안고 있는 과제인 ‘위험사회(risikogesellschaft)’에 대한 성찰과 대안적 삶을 고민했다. 또 ‘행궁동 플레이 키트(Play Kit)’를 진행하여 참여자 스스로 자기 기준을 통해 독립적 주체로 거듭나는 개별자로서의 ‘나’를 알아가는 과정을 ‘측량’이라는 방법으로 접근하여, 개개인들 스스로 사회 안에서 개별자로서 존중받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하였다. 〈번지〉는 시대의 화두인 ‘청년문제’에 대해 돌아보는 프로젝트도 시도했다.

“예술은 사회와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번지〉가 수원문화재단의 지원사업인 ‘청년 인큐베이팅 및 기획활동 로드맵 사업’에 지원하게 된 동기로 이러한 예술철학을 실천해보고 싶어서이다. 경쟁적으로 쏟아지는 청년세대에 대한 이야기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야기 되고 있다. 이에 〈번지〉내부에서 까지 이러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망설여졌다. 하지만 결국 〈번지〉는 “청년세대란 사회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왜 청년세대는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는가?”, “청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청년세대에 대한 지원 정책들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등 같은 이야기들에 대해 청년세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한 자리에 모여 이야기 하

는 것부터 출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참여를 결정했다.

‘청년’에 대한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번지〉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다. 우선 ‘청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 청년에 대한 정의는 다양했고, 정부나 지자체들의 정책들에서 정하고 있는 〈번지〉를 구성하는 구성원들도 청년에 대한 연령에 따른 규정만으로는 청년세대에 대한 공감을 충분히 끌어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고담활보 1강을 강의하신 고영직 문화평론가가 작년 UN에서 발표한 ‘평생연령5단계’를 통해 정한 청년의 범위는 18세에서 65세까지임을 들었다.

“누군가에게는 실없는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청년세대가 다른 세대들과 구분되어 분리되거나 고립된 세대로 대상화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대를 묶어줄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청년세대가 처한 현실을 특정 연령에 국한된 상황으로 바라보거나 자신과 무관한 일로 바라보는 태도는 지금의 청년세대가 처한 상황들에 대한 올바른 담론을 나누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15 문화예술교육_ 행궁동플레이그라운드



지역아동센터 교육프로그램



2012 문화예술교육_ 국경없는마을 RPG



‘프로젝트 그룹 번지’의 주희란(좌), 윤영욱(우)



〈번지〉의 ‘청년+기담(奇談)’은 2015년 진행한 ‘빈집+기담(奇談)’의 연장선에 있는 사업으로 ‘빈집+기담(奇談)’은 작년에 행궁동의 빈집과 같은 유휴공간의 의미와 풍경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고자 했으며, 예술의 사회적 개입에 대한 논의를 통해 예술가적 상상력이 어떻게 지역과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번 사업 중 ‘청년+기담(奇談)’에서는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무한 경쟁 구조와 그것이 낳은 ‘쓸모’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하고자 하였다.

‘청년세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번지〉는 청년, 그들의 ‘쓸모’를 높이데 있지 않다고 생각하며, ‘쓸모’를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문제의 논의를 이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문화예술의 본래 힘과 가치는 최대한의 ‘쓸모’를 창출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도구화하여 대상화하는 태도에 지양하는 데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의 지점이 문화예술과 청년을 잇는 프로젝트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기담’은 청년세대가 안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에 대한 포럼(고담활보, 高談闊歩: ‘고고하게 담화하고 의논하며 활보함’을 의미하는 ‘고담활보’는 행궁동의 곳곳을 산보하

듯 걸으며 도시의 다양한 모습에 대한 난장 형식의 포럼)을 도심 속에서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드는 것이 한 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경제 · 환경 · 사회 · 역사라는 네 가지 요소들이 문화의 틀 속에서 치우침 없이 고루 이야기하고, 나아가 문화예술의 여러 가능성들을 지역 내 청년세대와 함께 모색하고 시도(유유자족, 踟躕自足: 속세에 속박됨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 편히 지냄을 의미함이 아니라, 깨우치고(踰) 넘어서(踰) 스스로 발걸음(足)을 이어가려는 시도)가 다른 한 축을 이룹니다.

프로젝트 그룹 〈번지〉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번 프로젝트 중 고영직 문화평론가가 말한 ‘걸을 내어준다’를 이야기를 하였다.

“가까이는 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나와 비슷한 혹은 다른 생각을 지닌, 그리고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사람들과 때로는 흥겹게 또 때로는 치열하게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술은 삶의 현실적 토대와 무관한 피상적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번지〉만의 생각이 느껴졌다. 〈번지〉는 끝으로 파스칼 샤보의 〈논 피니토〉를 이야기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자신의 공모자를 찾기로 결심한 사람은 단순한 지식인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살아있음에 대한 자각과 자신의 몸과 맺는 관계 속에서 사유가 삶에 복무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사실을 배운다. 그는 단지 철학만을 하려는 게 아니라 살고자 한다. 살기 위해 철학을 탐구하는 것이다. 그곳이 바로 철학적 우정이 개입하는 지점이다.”

쌀쌀한 날씨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번지〉는 지식과 사유와 철학을, 예술로 번역하는 작업을 뜨겁게 수행하고 있었다. 우리 수원에도 이런 청년들과 프로젝트 그룹이 열정으로 살아있었다. 🏠

청년 인큐베이팅 및 기획활동 ‘로드트립’

수원의 새로운 정책과제인 청년정책과 맞물려 청년 스스로 및 청년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이 가능한 단체 및 팀을 대상으로 하여, 청년들의 문화적 활동을 독려하는 청년 문화인력 양성 및 활동 지원 사업

단체명	내 용
프로젝트 그룹 번지	청년+기담(奇談)
문명고전작은도서관	청년 화성 홍보활동가 양성
디어크라운컴퍼니	청년 문화공간단 스탠바스큐! (Stand by A.Q)

‘프로젝트 그룹 번지’ 주요활동

[교육]

- 2016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운영사업_ 우리동네 놀이타_현대미술, 일상으로의 초대_수원문화재단 공동주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2016 지역특성화지원사업_우리동네 놀이타; 행궁동 PLAY KIT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2015 문화예술프로그램_두드림 환경놀이터 (수원시기후변화체험교육관)
- 2015 문화예술프로그램_어른들의 놀이(협력) (시흥ABC학습타운)
- 2015 지역특성화지원사업_우리동네 놀이타; 행궁동 PLAYGROUND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2014 꿈다락토요문화학교_ ART RLAY 아카데미(협력) (화성시문화재단)
- 2014 찾아가는문화예술교육_하루검색(공동주관) (수원문화재단)
- 2014 지역특성화_열림동땅 생태도감(협력)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2014 [3R ART+] 생활의 재발견 전시연계 문화예술 교육 (수원시)
- 2012 꿈다락토요문화학교_국경없는마을 RPG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전시]

- 2016 청년인큐베이팅 기획_청년+기담(奇談) (수원문화재단)
- 2015 지역발전기획_빈집+기담(奇談) (수원문화재단)
- 2015 인천탁주 그 히스토리 역사관 설치 기획 및 진행(인천탁주)
- 2014 [3R ART+] 생활의 재발견: 다르게 생각하기(수원시)

[조사연구]

- 2014 문화이모작 지식실험공동체 연구모임 운영 (인천문화재단)

2016상상유니브 산타대작전 대학생산타모집

“산타대작전”이란?
대학생들이 직접 산타가 되어 소외된 우리 이웃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드리고
마음을 전하는 봉사활동입니다.



일 시 2016년 12월 23일 오전(금) ~ 24일 오후(토) (1박 2일)
장 소 충북 충주시 KT&G 수안보 수련관 (상상아틀리에 경기에서 다함께 버스로 이동)
모집인원 00명
봉사내용 독거노인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추억을 쌓고 말벗이 되어드려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는 봉사활동
주 관 KT&G 상상univ.경기운영사무국
신청방법 상상유니브 홈페이지(www.sangsanguniv.com)
-> 신청중 프로그램 -> 경기_산타대작전 -> 봉사 참가 신청
활동혜택 VMS 봉사시간, 간식 및 식사 + 산타들끼리 잊지 못할 **애프터파티**
문 의 상상univ.경기운영사무국 031-254-0629 / 상상발룬티어12기 대장 이정우 010-2670-9439

점성술과 조금 특별한 12+1개의 별자리

글 한수민 예술교육팀장



누구나 한 번쯤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내 별자리가 무엇
이고, 또 이에 따른 운세나 궁합 등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점성술의 기본이기도 한데, 사실 자신의 별자리가 왜
그 별자리인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본 글은 점
성술에 기반한 12개의 별자리를 천문학적 의미로 풀어보고자
한다.

별자리는 지구에서 보이는 하늘의 별들을 이어서 사물을
연상하도록 이름 붙인 것이다. 별자리를 구성하는 별들은 지
구에서 볼 때 같은 방향에 위치한 것이지 실제로는 아주 멀리
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별자리는 지역적·문화적·시대적
으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1930년 국제천문연맹(IAU)은 88개
의 별자리를 공인하여 현재까지 세계적인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북위 33도에서 38도 사이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비교적
많은 별자리를 볼 수 있는데, 관측자의 위치와 관측여건에 따
라 다르지만 연간 53개에서 일부만 보이는 별자리까지 합치
면 61개 정도의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다. 정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평선 위와 아래에 걸쳐진 별자리들이 많고, 지평선 부
근의 별은 대기의 영향으로 사실상 관측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적도에 사는 사람들은 88개의 별자리를 모두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12개의 별자리는 조금 특별하다. 이 12개의 별
자리는 하늘에서 태양이 지나가는 길인 “황도”에 위치한다
고 해서 “황도 12궁”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순서대로 나열하
면 양자리·황소자리·쌍둥이자리·게자리·사자자리·처녀자
리·천칭자리·전갈자리·사수자리·염소자리·물병자리·물고
기자리이다.

자신의 별자리는 자신이 태어난 날 태양이 위치한 별자리
이다. 따라서 내 생일에 내 별자리는 태양과 같은 방향(태양
의 뒤쪽)에 있는 관계로 관측이 불가능하다. 대신 6개월 후에
는 밤새도록 볼 수 있다. 점성술에서의 별자리는 매월 20일
~24일 경 다른 별자리와 구분되는데, 정보의 출처마다 그 기
준일이 조금씩 달라서 별자리가 매번 바뀌기도 한다. 굳이 이
유를 설명하자면, 12개의 별자리니 12달로 나누기 쉽고, 춘
분·하지·추분·동지 등 천문학적으로 의미있는 날짜가 이 기
간에 위치해있으며, 이 날짜들이 20일~24일을 내에서 매년
바뀌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점성술의 별자리는 현재의 천
문학적 기준점과는 많이 다른데, 크게 두 가지 이유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점성술의 별자리가 기원전 1~2세기

태양의 연중 별자리 위치

※ (괄호 안의 기간: 태양이 지나는 일자)



양자리 (4월 19일 ~ 5월 13일)

점성술 순서 1 / 천문학 순서 2



황소자리 (5월 14일 ~ 6월 19일)

점성술 순서 2 / 천문학 순서 3



쌍둥이자리 (6월 20일 ~ 7월 20일)

점성술 순서 3 / 천문학 순서 4



게자리 (7월 21일 ~ 8월 9일)

점성술 순서 4 / 천문학 순서 5



사자자리 (8월 10일 ~ 9월 15일)

점성술 순서 5 / 천문학 순서 6



처녀자리 (9월 16일 ~ 10월 30일)

점성술 순서 6 / 천문학 순서 7



천칭자리
(10월 31일 ~ 11월 22일)

점성술 순서 7 / 천문학 순서 8



전갈자리
(11월 23일 ~ 11월 29일)

점성술 순서 8 / 천문학 순서 9



뱀주인자리
(11월 30일 ~ 12월 17일)

점성술 순서 - / 천문학 순서 10



사수자리
(12월 18일 ~ 1월 18일)

점성술 순서 9 / 천문학 순서 11



염소자리 (1월 19일 ~ 2월 15일)

점성술 순서 10 / 천문학 순서 12



물병자리 (2월 16일 ~ 3월 11일)

점성술 순서 11 / 천문학 순서 13



물고기자리
(3월 12일 ~ 4월 18일)

점성술 순서 12 / 천문학 순서 1

경 파생된 헬레니즘 점성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춘분(3월 20일~22일)점이 양자리의 시작점에 위치해 있었던 관계로 양자리는 황도 12궁의 첫 번째 별자리가 되었다. 하지만, 지구는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 있기 때문에 약 25,800년을 주기로 세차운동을 하여 그 기준점이 변한다. 세차운동이란 팽이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팽이의 움직임에서 중심축을 중심으로 자전하는 것과 별개로 팽이의 꼭지는 하늘을 향해 또 다른 원을 그리며 회전하게 되는데, 이것이 세차운동이다. 벌써 그 주기의 12분의 1의 세월이 지났기에 이미 1달의 차이가 발생했고, 그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질 것이다. 헬레니즘 점성술 시대의 춘분점은 양자리에 있었지만, 현재는 물고기자리에 위치해 있고, 약 1,000년 후에는 물병

자리로 접어들나, 결국 약 23,700년 후에 다시 양자리로 돌아온다.

두 번째 이유는 1930년 88개의 별자리가 공인되면서 별자리의 구역을 명확하게 지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별자리의 구역이 뼈대를 이루는 밝은 별들을 중심으로 뭉뚱그린 정도였다면, 현재는 적위 적경의 분 단위까지 규정하여 태양이 별자리를 넘어가는 순간도 명확하다.

하지만 두 번째 이유 덕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별자리의 구역이 명확해지면서 태양이 지나는 길에 12개의 별자리 외에 한 개의 별자리가 끼어들게 됐다. 바로 “뱀주인자리”이다. 태양은 매년 11월 30일부터 12월 17일 정도에 이 뱀주인자리를 지난다.(따라서 이 날짜에 태어나신 분들은 사실 별

자리가 뱀주인자리다.)

또한 별자리의 크기와 황도가 걸친 위치에 따라 태양이 지나가는 시간도 제각각이다. 태양은 처녀자리에 무려 45일을 머물지만, 전갈자리는 고작 7일 만에 통과한다. 하지만 이 날짜도 매년 1~2일 이내에서 변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경계일에 있다면 사실 태어난 생년월일과 시각까지 알아야한다.(큰 의미는 아니므로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점성술은 천문현상이 인간세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믿는 일종의 신앙체계로 역사적으로 많은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예로부터 권력자들은 천문현상을 통해 국가의 앞날을 점치며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한 일식이나 월식과 같은 예측 가능한 정보를 활용하여 “하늘이 준 권력인 것처럼”

백성들을 통치하기도 했다. 과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점성술은 그 힘을 잃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일상에서 의미있게 활용되고 있다.

날씨가 춥긴 하지만 겨울은 사계절 중 별보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다. 맑은 날씨가 맑은 날이 많고 대기도 비교적 청명할 뿐만 아니라 유명한 별자리나 밝은 별들이 겨울철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전 하늘에서 1등성(시등급 1.5등급 미만)은 모두 21개인데, 이 중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별은 15개이다. 15개의 1등성 중 7개가 겨울철 별자리에 속해 있고, 온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인 큰개자리의 시리우스(-1.5등급)도 우리나라에서 겨울에만 만나볼 수 별이다. 오늘 밤하늘에서 네 별자리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

이 겨울 전통레시피로 몸을 保하다_(보)

글 이현희 자연요리연구가

두부전골

여러 가지 채소와 두부, 소고기, 표고버섯을 이용하여 강한 향신료를 쓰지 않고 채소 모양을 일정하게 한다. 담음새도 안전하게 하여 청장으로 간을 하며, 맛있지만 부드러운 맛을 내어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는 음식이다.

대하 잣즙 냉채

가을철이 제철인 잣으로 즙을 만들어 대하, 수삼, 밤, 단감, 배에 버무린 최고의 제철 영양식이라 할 수 있다.

가지선

요리이름 뒤에 붙는 '선'이라함은 오이 가지 호박 두부 등의 재료에 소를 넣고 녹두 녹말을 섞어 살짝 찐서 초간장에 찍어 먹는 음식을 '선'이라 한다.

수원전통문화관에 위치하고 있는 전통식생활체험관에서는 궁중음식, 발효음식 등 다양한 전통 음식 교육 및 체험이 가능하다. 수시로 새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니 전통식생활 체험관 홈페이지(www.swtf.or.kr) 혹은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www.swcf.or.kr)를 참고 하도록. 문의 031-247-3612



두부전골

두부 1모, 녹말가루 3큰술
쇠고기 150g
마른표고버섯 4장
무 100g, 숙주 70g
당근 50g, 양파 1/2개
실파 50g, 미나리 50g
달걀 2개, 호두 4개
잣 1큰술, 식용유
국간장 약간, 소금약간
참기름 약간

고기·표고양념
국간장 1큰술
설탕 1/2큰술
다진 파 2작은술
다진 마늘 1작은술
깨소금 1작은술
참기름 1작은술
후춧가루 약간



가지선

가지 4개
달걀흰자 150g
부추 50g
생강즙 1작은술
소금, 후추 약간
녹말 약간

소스재료
간장 2큰술
올리고당, 청주 1큰술
물 1/2컵
소금약간

녹물말
녹말 1작은술
물 2큰술



대하 잣즙 냉채

새우 (대하 4마리)
수삼 1뿌리
오이 1개
배 1/2개
단감 1개
밤 3개

잣즙재료
잣 3큰술
식초 2큰술
물 2큰술
설탕 1큰술
소금 1/2 작은술
연겨자 1큰술

- 01 두부는 길이 3cm 폭 2.5cm 두께 0.7cm 크기로 썰어 소금을 약간 뿌린 후 물기를 뺀다. 겉면에 녹말가루를 고루 묻혀서 노릇하게 지진다.
- 02 쇠고기 100g은 채 썰고 50g은 곱게 다진다.
- 03 표고버섯은 불려서 채 썬다.
- 04 채 썬 고기, 표고버섯, 다진 고기는 각각 양념한다.
- 05 무와 당근은 5cm길이를 납작하게 썬 후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데친다.
숙주는 머리와 꼬리를 떼고 다듬어 끓는 물에 데친 후 참기름, 소금에 살짝 무친다.
- 06 양파는 길이로 채 썰고 실파는 5cm길이를 썬다. 미나리는 잎을 떼고 다듬은 후 끓는 물에 데쳐 찬물에 헹궈 놓는다.
- 07 지진 두부 두 장 사이에 양념한 다진 고기를 넣은 다음 데친 미나리로 가운데를 한번 묶는다.
- 08 호두는 따뜻한 물에 불려 껍질을 벗긴다.
- 09 준비한 채소와 고기, 두부를 전골냄비에 돌려 담고 호두와 잣을 뿌린다.
- 10 더운물 5컵에 국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다음 전골냄비에 붓고 끓인다. 재료가 다 익으면 달걀을 넣는다.

- 01 가지는 4cm길이를 썰어 아래쪽을 1cm를 남기고 열십자로 칼집을 낸 후 가운데에 소금을 약간 넣는다.
- 02 달걀흰자는 다지고, 부추와 양파는 잘게 썰어 준비한다.
불에 담고 생강즙과 소금 후추를 넣고 치댄다.
- 03 칼집을 낸 가지에 녹말을 묻혀 털어내고 2의 재료를 넣는다.
- 04 김오른 찜통에 가지를 올려 찐다. (약 7분 정도)
- 05 냄비에 분량의 소스를 넣고 바글바글 끓으면 물녹말을 넣어 한 번 더 끓인 후 찐 가지에 끼얹어 낸다.

- 01 대하는 소금물에 씻고, 꼬치를 등쪽으로 길게 끼운다.
찬물에 대파, 청주를 넣고 삶는다.
붉은빛을 띄우며 익으면 건져 그대로 식힌다.
- 02 식힌 새우는 껍질을 벗기고 2등분 한 후 소금 후추로 살짝 밑간을 한다.
- 03 오이는 소금으로 껍질을 문지른 후 5cm길이를 토막 낸다.
반으로 갈라 씨를 제거하고 2cm폭으로 썰어 소금으로 살짝 간을 한다.
- 04 배와 단감은 껍질을 벗기고 오이와 같은 크기로 썰어 설탕으로 살짝 간을 한다.
- 05 수삼은 잔뿌리를 떼어 내고 깨끗이 씻어 5cm길이를 가늘게 채 썬다.
- 06 잣은 분쇄기에 넣고 뿔은 뒤 분량의 재료를 넣고 간을 맞춘다.
- 07 준비된 재료는 물기를 제거 한 후 상에 내기 직전에 잣즙에 버무려 낸다.

한국음식은 '의식동원', '약식동원'의 문화이다. 즉, '입으로 먹는 음식이 몸에 약이 된다.', '먹는' 음식이 곧 약이 된다.'라는 근본사상을 내재하고 있다.

궁중음식이 한국음식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각 고을에서 제철에 들어오는 진상품으로 조리기술이 뛰어난 주방상궁과 대령숙수들의 손에 의해 최고

의 솜씨로 만들어졌으며, 왕과 왕의 가족들에게 올리므로 자연히 맛과 영양은 물론 꾸밈새와 고명을 통하여 시각적인 아름다움까지 선사한다.

제철에 나오는 재료를 음식으로 해서 먹는 법은 자연의 순리에 맞추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며 정서를 순화하는 좋은 방법이다. ♣



이현희 자연요리연구가·궁중음식 체험강사이며, 사찰음식·향토음식·솔로푸드 관련 다양한 매뉴개발, 카친디자인그룹에서 메뉴디자이너로 활동 중이다.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백성의 도시에서 시민의 도시로 거듭나다

글 이동근 수원박물관 학예연구사



정조대왕 능행차 ©수원시



해경궁 홍씨의 가마행렬 ©수원시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의 의미

우리는 중요한 무언가를 기념할 때 보통 10년 주기로 행사를 준비해 나간다. 2016년은 수원 화성의 대역사가 이루어진지 220주년 되는 해이다.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는 수원시가 수원 화성에 녹아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의 가치’를 통해 행복한 미래를 세계인들과 함께 열고자 하는 해이다. 수원화성 축성 220주년을 기념하며, 백성을 위해 만든 도시가 이젠 시민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사람의 가치’는 수원 화성이 축성되면서 펼쳐졌던 정조대왕의 ‘백성과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與民同樂)’하고자 했던 마음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정조대왕은 수원 화성을 건설하면서 ‘옛 것을 모범으로 새것을 창출한다(法古創新)’는 정신을 강조하며 새로운 근대로의 꿈을 펼쳤다.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였고, 군주로서 항상 백성들을 위해 고민하였다. 더불어 아버지 사도세자와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향한 ‘효(孝)’를 실천했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담고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가 열렸다. 그 중 가장 중요한 행사이자 핵심 콘텐츠는 1795년의 수원 능행차를 복원한 ‘정조대왕 능행차’였다.

정조대왕 8일간 능행차의 역사성

정조대왕은 재위기간 동안 수원에 13차례나 행차했다. 그 중 1795년 나들이가 가장 큰 규모였고, 현릉원 참배와 어머니의 회갑연 행사를 위해 1,779명의 수행원들이 함께했다. 거동길에 동원된 실제 인원은 총 6천여 명으로 이중 4천 5백여 명이 5군영 군사로 장용영 군사들이 3천여 명에 달했다.

정조대왕은 1795년 을묘년 화성행차에서 아버지 사도세자를 추모하고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을 축하하며 백성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자 했다. 더불어 화성의 건설은 백성을 위한 새로운 도시의 건설임을 표명하며 군주는 백성을 위해 존재함을 과시했다. 그 행차길에서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많은 민원이 처리되었다. 정조대왕은 행행 중에 3,355건의 상언(上言)이나 격쟁(擊鎗)을 처리했다. 이 중 수원에 내려와서 처리한 상언이 1천 1백여 건이나 된다. 다른 능행차보다도 민원처리가



격쟁 ©수원시



배다리 재현



플래시몹



많았는데 그 만큼 수원 화성을 사랑하고 백성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는 증거다.

정조대왕 8일 간 능행차 재현, 힘찬 첫 걸음

221년 만의 대규모 행렬은 2016년 10월 8일 아침 일찍 서울 창덕궁을 나서 노들섬에 설치한 부교(浮橋)를 건너고 노들섬에 도착했다. 노들섬에서는 서울시민들이 능행차의 축제를 즐겼다. 임시로 만든 배다리는 그대로 포토존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한강 위에서 사진을 찍으며 새로운 추억을 남겼다. 노들섬에서는 혜경궁 홍씨에게 정조대왕이 미움을 올리는 미음다반 퍼포먼스가 열리고 정재 공연이 펼쳐졌다. 서울시민들은 먹거리 장터를 열어 먹는 즐거움도 함께했다. 다시 노들섬을 출발한 능행차 행렬은 시흥행궁으로 향했다. 풍물 및 산대놀이와 정조대왕을 맞이하는 호위무사들의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그리고 다음날은 안양을 거쳐 의왕을 통과한 뒤 능행차의 메인인 수원구간으로 행렬이 이어졌다.

이번의 능행차는 수원시와 서울시의 노력이 있었고, 지자체들의 협력과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서울에서부터 수원까지 능행차의 대형 퍼레이드가 재현되었다는 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번에 재현된 능행차 거리가 47.6km에 달하고, 능행차에 참가한 인원이 무려 3천 1백여 명, 동원된 말이 400여 필이나 된 대형 이벤트였다. 능행차 구간 곳곳에서는 상황극과 공연, 퍼포먼스 등이 펼쳐졌다. 그리고 각 지자체를 지날 때마다 지자체장들이 고을 수령으로 분장하여 정조대왕을 맞이하고 백성들의 격쟁이 재현

되었다. 또한 시민들의 플래시몹 등은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수원구간은 시민들이 효행등을 밝히고 직접 참여하는 시민행렬로 이어졌고, 종로네거리에서는 격쟁을 재현하여 정조대왕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많은 외국인들도 직접 병졸과 궁중 나인이 되어 능행차에 참여했다. 능행에 참여한 인원도 더해 거리의 관람객들도 예년에는 볼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로 대성황을 이루었다. 능행이 끝나면서는 대형 무예공연 ‘야조(夜擧)’로 창룡문 연무대에서 그 화려한 막을 내렸다.

올해 재현된 창덕궁부터의 능행차 길은 새로운 첫 걸음이다. 능행차가 끝난 후 많은 이들이 완벽 재현, 완판 재현을 이야기하며 들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완벽 재현의 길은 아직 멀다. 먼저 능행차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 하나인 현릉원 참배를 하며 ‘사도세자의 아들’임을 표명했던 정조대왕의 ‘효’의 정신은 화성시의 불참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지자체장들의 정치적 입장에 따른 반쪽짜리 행사로 능행차의 행렬은 사도세자의 무덤인 현재 용릉을 참배하지 못하였다.

더불어 능행차에 표현된 역사적 고증도 아직은 부족함이 많다. 기록이 있기에 중요한 복원들이 이루어지며 행렬의 순서와 복장, 가마 등이 표현되었지만 정확한 복원은 아직이다. 사실 당시의 모습을 기록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기에 완벽한 복원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다보니 역사적 고증보다는 퍼포먼스적 성격이 강하게 눈에 띄었다. 서울 행차 구간의 이벤트적 능행차 모습과 노들섬 배다리에서 말이 놀라 혼자 내달렸던 아찔했던 순간, 다행히 아무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

한 행렬이 중간에 끊겨 혜경궁 홍씨의 가마가 나중에서야 혼자 배다리를 건너야 했던 모습, 콘서트를 진행 하는 듯한 진행자의 멘트 등은 아쉬움을 남겼다. 수원구간에서도 많은 관람객들이 도로 변에 모여서 능행차를 지켜보았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하지만 아직도 동원의 모습이 간간히 눈에 띄었다. 동원과 자율적 참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이다. 시민참여의 연등행사와 역대 최고의 시민들이 관람을 했지만 능행차에 참여한 행렬 속 군사들의 어설피름과 지친 모습은 옥에 티였다. 그리고 관람객들은 구간마다 누가 정조대왕인지 궁금해 했다. 정조대왕 보단 각 고을의 수령으로 분장한 지자체장들이 너무 돋보였기 때문이다. 능행차에서 보여주어야 하는 효와 왕의 위엄을 드러내야하는데 가벼운 놀이문화로 비춰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수원시의 능행차 재현의 경험은 벌써 수십 년째로 능행차의 재현뿐만 아니라 봉수당 진찬연, 양로연, 낙성연, 야조 등을 펼쳐나가고 있다. 1795년 정조대왕 8일 간의 행차에서 벌어졌던 행사들을 재현하고 그 의미를 되찾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능행차에 참여하고 지켜 본 많은 사람들은 즐겁게 행사에 참여하며 그 순간을 즐기고 있다.

이제부터가 ‘수원화성 방문의 해’의 시작이다.

수원 화성 행차는 많은 의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다. 정조대왕은 윤 2월 12일 행차 넷째 날 이른 새벽에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사도세자가 묻혀있는 현릉원을 참배했다. 그리고 슬픈 마음을 달래며 화성행궁

으로 돌아와 오후에 수원 화성을 방어하는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 정조대왕은 장용영 군대를 중심으로 한 군사훈련을 통해 그 동안의 위엄을 드러내며, 국왕의 강한 힘과 국방강화의 의지를 드러내고자 했다. 즉 수원 화성에서 ‘효(孝)’와 ‘충(忠)’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것이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담아내야 할 가치이다.

능행차의 본질과 수원 화성의 정체성을 이야기 할 수 있는 학술적 고증과 그와 연계된 행사 내에서의 핵심적 콘텐츠가 절실하다. 정조대왕 능행의 진정한 의미인 ‘충효사상’을 어떻게 임팩트 있게 표현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펼쳐 보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진정한 축제의 한마당이 되려면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더 크게 이끌어 내면서 백성을 위한 도시의 의미가 현재적으로 시민을 위한 도시임을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다.

수원은 이미 이러한 모든 기반들과 경험을 가지고 있고 시민들은 즐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는 2016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때문에 ‘정조대왕 능행차’는 많은 시민들과 함께한 즐거운 축제의 시작이자 그 첫걸음이다. ★



이동근 서둔벌에서 서호천을 놀이터 삼아 유년시절을 보냈고, 수원을 떠나 산 적이 없는 수원객쟁이다. 현재 수원박물관 학예연구사로 누구보다도 고향 수원을 사랑하며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되새기고자 한다.

이승휴의 북경 가는 길

글 황미숙 '문명고전작은도서관'지기 그림 김병하

동안거사 이승휴(李承休, 1224~1300)의 저서 『제왕운기』에는 단군 기록 외, 권4 말미에 『빈왕록(賓王錄)』이 있다. 이 『빈왕록』은 이승휴가 서장관으로 임명되어 1273년 원나라 수도를 다녀온 후 편집해 남긴 사행 기록이다. 고려 원종은 원나라의 황후와 태자의 책봉을 하례하기 위해 고려에서 순안후 왕종(王宗, 충렬왕 동생)을 하진사로 파견하였다. 이때 동행했던 이승휴는 112일의 기록을 일기형식으로 남긴 것이다.

이승휴는 『빈왕록』 서문에서 '어느 날 상자를 뒤지다가 지난날의 삶의 부침이 새로워 사행 기록을 한 부 엮어서 『빈왕록』을 냈다'고 하였다. 그는 벼슬에서 물러나게 되자 사행 중에 지었던 시와 표문 등을 함께 엮어 1290년 이 책을 편집하였다.

이승휴는 몽골의 침략을 정면으로 목격하였고, 삼척현 두타산 아래에서 농사지으며 홀어머니를 모셔야 했다. 구관시(求官詩)를 통해서 벼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관직생활은 평탄하지 못했다. 『고려사』 열전에서 이승휴에 대해 '성품이 정직하여 세상에 바라는 것이 없었으며, 불법(佛法)을 매우 좋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렇듯 강직한 성품으로 파면과 좌천이 잇따랐던 그가 서장관으로 북경을 두 번이나 오갔으며, 그가 지은 표문은 원나라 관리들을 놀라게 하였다. 사행길에 동행했던 송송례(宋松禮)도 "문장이 중국을 감동시킨다는 말은 입자를 두고 하는 말이오."라며 탄복하였다.

사행단에서 서장관의 역할은 하루하루의 사건을 기록하는 기록관이며 외교 문서를 담당해야 하므로 문재(文才)가 있는 사람을 필요로 했다. 이때에 고려 원종은 세 번이나 선발해 올린 추천자를 거부하고 이승휴를 발탁한 것이었다. 원종이 이승휴를 서장관으로 임용할 때 "다만 재주로써 추천하면 되지, 관직이 있고 없음을 상관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였다. 원종은 원나라와 고려국의 통혼을 통해 왕권 강화를 꾀하고자 했던 자신의 다분한 정치적 목적을 실행시켜줄 이승휴의 균형감각을 눈여겨본 듯하다.

그러나 개경을 떠나 북경으로 떠나는 길에 유독 많은 비가 내려 사행길이 지연되었다. 『빈왕록』은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패강(溍江, 현 대동강, 여기서는 예성강으로 본다)을 건너는 시로부터 시작한다.

어두운 산골짜기 동이로 퍼붓듯 쏟아지는 비,
(谷暗山賁雨瀉盆)
갈림길에 이르자 붉은 황톳물 팔팔 흐르네.
(到頭歧路赤流奔)
일엽편주 작다고 앞보지 말라, (莫輕一葉扁舟少)
만경의 거센 물결 단번에 건너리. (直渡沅沔萬頃渾)

이승휴는 사행단의 일원이 되어 북경을 향해 떠나는 마음은 어떠했을까. 원종의 각별한 고심 끝에 서장관이 되었다고는 하나 고려국의 현실을 너무나도 자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그로 써는 퍼붓는 빗줄기가 오히려 반가웠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승휴가 북경을 다녀왔던 500여 년 뒤, 1780년(정조 5년) 6월 24일에 압록강을 건너는 박지원의 『열하일기』 장면에서도 보슬비가 종일 뿌린다고 적고 있다. 이승휴는 장마물이 넘쳐나는 가운데 6월 29일에는 요하 하류인 동경[東京: 요양(遼陽)]에 도착하였을 때 고생하는 심정을 적는다. 하루 종일 비바람이 불고, 요하의 물결은 하늘을 삼킬 듯하였다. 떠날 때부터 쏟아진 비는 동경에 도착해서도 계속되어 8일간 숙소에 머물게 되었는데, 추운 날씨에 병까지 걸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사행단의 고달픔이 그대로 전해온다. 큰물에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동안 심정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던 듯하다.

우여곡절 끝에 이승휴 일행은 8월 4일 대도에 도착하였으나 세조 쿠빌라이가 원나라 여름 수도 개평부(上都, 원나라가 북경으로 천도하기 이전의 수도로 현재 내몽골자치구 지역)를 순시하고 있었다. 이때에 이승휴의 일행은 황후를 먼저 만나 본 뒤에 순안공과 함께 금나라 때에 세워진 여강(滬江)의 석교(石橋)를 방문하였다. 여강의 석교는 북경시 영정하(永定河, 청나라 강희제 때에 개명)의 노구교(蘆溝橋)로 북경에서 서남쪽으로 15km가량 떨어져 있다.

여강의 석교는 천하에 널리 알려졌지(滬江石橋天下傳)
...
아름답고 장엄한 규모 사람의 솜씨는 아니지,
(口妍宏壯非人爲)
진정 천안으로 교묘히 분별하여, (定將天眼巧分別)
몰래 와서 (...) 설치한 것이겠지, (密□□□來設)
그것이 아니라면 중추의 밝은 달이, (且疑中秋午夜輪)
청광(淸光) 수채(秀彩)가 창공을 새롭게 수놓은 것을,
(淸光秀彩當空新)
미련한 이에(夷羿)가 그만 쏘아 떨어뜨린 것을,
(頑然夷羿輒射落)
주워 모아 강물 위에 빗겨 던졌는가?(收拾綴行橫江擲)
...
꼬불꼬불 휘어진 난간이 서로 받쳐주고, (廻欄曲楯相撐支)
쭈그리고 걸터앉은 원숭이와 호랑이에 서린 교룡,
(蹲猿踞虎井蟠螭)
어린이 업고 공중에서 춤을 추는 듯, (提孩負子空中舞)
구경꾼들 헤아리기 어렵네. (遊人欲數終難數)

이승휴는 석교의 아름다움에 극찬을 아끼지 않는다. 북경의 젓줄인 여강 위에 놓인 석교에는 여전히 탄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주변의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보이는 지금의 다리는 청나라 때에 재건되었다. 돌사자 조각상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있는 듯 절묘하고 각각의 모양이 같은 것도 없거니와, 돌사자일지라도 엄마 사자와 새끼 사자가 정겨워 보였다. 금나라가 정성들여 아름다운 돌다리를 건설했을 만큼 이 물줄기는 소중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석교가 이승휴 일행도 방문하였던 곳이라는 것을 대학원 강의를 듣던 중 알게 되었다. 『동안거사집』을 번역하였던 교수님도 그냥 무심히 지나쳤다면 무척이나 반가워하던 모습일 선하다. 그저 오늘날에 불려지는대로 중일전쟁이 발발된 ‘노구교사건’속의 다리로 기억하였다. 또한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문록』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바람에 붙여진 ‘마르코 폴로의 다리’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이승휴의 사행단은 8월 25일에 쿠빌라이를 드디어 만날 수 있었다. 북경 만수산 동쪽에 새로 지은 장조전에서 하례식을

하였다. 이때에 이승휴는 궁전의 규모와 정교함의 아름다움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지경이라고 또다시 탄복하였다. 그리고 사행단은 9월 25일 압록강까지 돌아왔다.

이렇듯 이승휴가 원나라의 실상을 목격하고 돌아온 뒤에 쓴 『빈왕록』에서는 『제왕운기』에서 보여주는 그만의 웅혼함이 아쉽게도 보이지 않는다. 서장관의 임무에 따른 의도에 서인가 싶기도 하고, 벼슬을 마치고 돌아와 정리한 까닭인가 싶기도 하다. 당시대를 살아간 이들을 알지 못하면서 무어라 하기에는 표현하지 못할 허허로움에 붙잡힌다. 혼란한 시대를 살았던 이승휴에게 이래저래 가슴 저린 비애를 느끼게 한다.

원나라의 질서 속에서 고려국의 신하로 원종의 뜻을 따르고자 애썼던 이승휴가 『빈왕록』을 편집하고 끄트머리에 쓴 글이 더욱 애달프다.

우연히 유고를 찾다가 다시 침묵에 잠기었노라.
(偶尋遺草更沈吟)
농부가 어떻게 정음(正音)에 맞을 수 있으랴.
(擊壤那能中正音)
스스로도 우습구나, 가난한 집안에
일물(一物)도 없으면서, (自笑貧家無一物)
공연히 현 빗자루 갖고 천금을 누리려 했네.
(空將弊帚享千金)

이승휴는 『빈왕록』을 편집하고는 스스로 심사가 심드렁했나 보다. 현 빗자루 하나로 천금에 이르는 줄 안다는 속담까지 꺼내놓고 있다. 선비들이 매번 글 말미에 장독 뚜껑으로 나 쓰라고 하는 겸사가 나올 것인가.

지금까지 나 또한 쥐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세상을 애써 외면하였다. 그러나 내가 저질러 놓은 일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불쑥 솟아나는 객기가 계면쩍어 헛웃음이 나온다. 어찌하겠는가 스스로 우습다고 할지라도, 이제 와서 이리 구부러지고 저리 구부러진다 해도 그냥 물러 설 수 없는 것은 아닌가. 영화를 누리려는 것은 아닐지라도 낯고 헤친 빗자루일 망정 부지런히 손을 놀려야 하리라.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책무를 감당 할 뿐이다. ✎



※ 시 번역은 이승휴지음 진성규 옮김, 『동안거사집』을 참고.
※ 본문의 ‘마’는 원문 누락임.



황미숙 수원 교동에서 태어나서 성장하여 중앙대학교 대학원 역사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영동시장 귀퉁이에서 공일만 한 '문명고전'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며, 한문고전 번역과 글 쓰는 일을 하고 있다. 수원사람들의 소소한 일상의 삶을 기록하여 보존하고 정리하는 아카이브(기록보관)에 관심을 갖고 있다.



고전의 향기로 역사와 인물을 물들이다!

글 김희만 역사학자·문학박사



고전통변(古典通變) 노관범 지음, 김영사, 2014

이 책은 이렇게 시작된다. ‘고서는 언제 보아도 마음이 설렌다.’ 참 공감이 된다. 아마도 인문학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같은 생각이 들 것이다. 이런 책을 손에 쥐면 나도 마음이 설렌다. 이를 이심전심(以心傳心)이라고 해야 할까? 서점에서 책 나들이를 하다 보면 눈길이 가는 곳이 있다. 고전, 역사, 인문 그리고 지식 등등… 부제(副題)도 재밌다. ‘1714~1954 전환기 우리 고전에서 발굴한 뜨겁고 매혹적인 역사의 현장’이라고 포장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변화의 흐름을 꿰뚫고 싶다면 전환기 고전을 읽어라.”라는 매우 선정적인 광고로 책을 팔고 있다.

『고전통변』은 격동의 한국역사 240년(1714~1954)을 다루고 있다. 전통과 근대를 아우르는 시기다. 우리 역사에서 아련한 추억이 깃든 잊을 수 없는 시대인 것이다. 고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리라. 그런데 통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그 모체는 주역(周易)의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간다(變則通 通則久)’라는 구절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통은 계승, 변은 혁신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옛 것을 이으면서도 새로운 것을 꿈꾼다는 법고창신(法古創新)과 온고지신(溫故知新)과도 통하는 말이다.

이 책의 편집자가 쓴 글을 잠시 엿보면 ‘한 번 읽기에는 좋지만 다시 집어 들기는 싫은 책이 있고, 처음에는 어렵지만 읽을수록 향기가 나는 책이 있다. 『고전통변』은 후자였다’라는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실 이 책을 집어든 순간 여러 면에서 감정이 오버랩 된다. 우선 그 장정이 마음에 든다. 목직하고 정감이 간다. 그 목차를 보는 순간 더욱 다정해진다.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행복감이라고 하면 지나칠까. 18세기 지성사, 19세기 지성사, 전환기 지성사, 20세기 지성사 등이다. 웬지 이 책을 읽으면 18세기 이후 20세기까지의 지성인들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팽배해진다.

역사와 고전은 불가분의 관계다. 역사를 이루는 근원은 고전에서 시작된다. 고전은 역사를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이다.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만 백년을 살아도 사람 사는 세상은 그다지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세상을 보는 시야를 더 길게,

조금 더 길게 장구한 역사의 시야로 확장해서 본다면 일상의 눈에서는 보이지 않던 뜻밖의 깨달음과 만날지도 모른다.” 인생을 관조한 지성인의 소리로 들린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한다. 모든 것은 상대적일 뿐이라는 것이다.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왔던 것이 실제로는 상대적인 것이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실학(實學)이며, 상대적인 것들을 반드시 안과 밖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구획하여 어느 한쪽에 배치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것을 허학(虛學)이라고 한다. 우리는 실학을 추구하고 있는가.

고전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 고전이 힘을 얻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고전 읽기를 강조하고, 출판계에서는 고전 다시 쓰기를 기획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얕팍한 인스턴트 지식들을 떨쳐내고 심신을 올리는 목직한 고전의 쉼소리를 듣고 싶은 것”은 것이 사실이다. 조정 박제기는 ‘고전은 언제나 우리의 안에서만 맴돌고 있으며, 그래서 고전을 알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한다. ‘조선 안의 중국’이 문제였던 것이다. 조선은 유사 이래 중국과 교류하며 항상 중국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는데 그것이 병폐였다는 것인데, 이 시대에도 유효한 외침이다.

19세기 지성사에서는 그 소재목이 우리를 인도한다. 시대가 바뀌면 사람 사는 세상도 다른가 보다. 무언가 새로운 현상이 도래한 것이다. 바둑을 잘 두는 법, 미래를 향한 진정한 미덕, 서울에 퍼진 가짜 도학의 소문, 서울의 새로운 인간 군상, 시대 전환기의 새로운 독서 전략, 함경도 유학자가 남긴 화려한 문집, 서북 사람들도 기호 사람이다, 식견을 기르는 글쓰기 등 이전보다 구체적이며, 변화를 꿈꾸는 세상이 보인다. 그것이 시대상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전환기의 지성사에서는 우리가 익히 아는 역사가 등장한다. 임오군란이 그것이고, 단발령 전야, 대한제국, 우산국과 폴란드와 청나라의 공통점, 그리고 일본이 꿈틀댄다. 특히, 1882

년 임오군란 이후 1894년 청일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청나라 세력이 장기간 조선에 정치적 영향을 미침에 따라 서울에서는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문화와 학술교류가 활발히 일어난 게 된다. 오래된 조선과 새로운 조선이 섞여 있는 혼란한 시대에 조선의 앞날을 걱정하기도 한다. 이후 자주와 마음과 자강의 기운, 대한제국의 위기를 계기로 각성하게 된다. 전환기의 상황이 그대로 전해진다.

20세기의 지성사는 공화국의 미래로부터 시작한다. 양명학의 전설, 허생 이야기 박씨 이야기, 그리고 해외 한국학의 열기, 개성상인의 대만 여행, 8.15 해방 등이 전면에 등장한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사항이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에서 유래하는 오랜 헌정사적 전통 위에 있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관련해 요즈음 뜨거운 감자로 자리하고 있다. 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장담하기는 어렵다.

이 책은 그리 평범하지가 않다. 좋게 말해서 고전이지만 그 내용은 역사의 현장이다. 다양한 인물과 만나는 재미도 있다. 아는 인물도 다수 보이지만 소박하고 구수한 선비들도 만나게 된다. 이 책의 기본 글쓰기는 서설(序說)을 붙이고, 번역에서는 저자와 출전을 밝히고, 이를 해설하고, 그리고 원문과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서설이 이 책의 저자 목소리다. 다양한 지식을 소개하고 다음에 따라올 내용을 앞에서 유도한다. 글쓰기와 더불어 읽는 재미도 쏠쏠하다. 맛있는 반찬을 선물하고 있다. ★



김희만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으며, 이를 대중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 『한국사의 이해』, 『화랑세기를 다시 본다』 등의 공저서와 「수여선의 개통과 사회변화」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최근 인터넷신문 뉴스피크에 ‘헌책방의 인문학’이라는 코너를 마련하여 격주로 글을 연재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다.

2016년도 문화달력

12월

12

December

11.18.(금) ~ 12.16.(금)

매주 금요일 총 4회 / 10:00~12:00

어린이전통악기체험프로그램

수원전통문화관 예절교육관

11.29(화) ~ 12.11(일) 10:00~17:00

기획전시실 대관전시 <김지연(공예)>

수원전통문화관 기획전시실(월요일 휴관)

11.30(수) ~ 12.4(일)

수원시립공연단 정기공연

"열두명의 성난사람들"

수원SK아트리움 소공연장



12.2(금) 19:00

"문화마중, 우리동네 감사콘서트"

광고2동 주민센터

12.2(금) 19:30, 12.3(토) 17:00

국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



12.4 ~ 18(매주 일)

아빠랑 그림책 여행

지혜샘어린이도서관

12.6(화) 13:00

"문화마중, 찾아가는 공연"

버드내노인복지관

12.7(수) 10:00

"문화마중, 찾아가는 공연"

무봉중합사회복지관

12.8(목) 11:00

만원의 비밀<장영실편>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



12. 9(금) 19:00~21:00

슬기샘 달별캠프

슬기샘어린이도서관

12.9(금) 19:30, 12.10(토) 17:00

수원문화원 해후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

12.13(화) ~ 12.25(일) 10:00~17:00

기획전시실 대관전시

<(사)화성연구회사진기록위원회>

수원전통문화관 기획전시실(월요일 휴관)

12.14(수) ~ 23(금)

문학이동안 아카이브전(展)

수원문화재단 기획전시실

12.16(금)~12.17(토)

세시풍속~북새통12(동지)

수원전통문화관

12.17(토)

'웅심이 동동' 동지팔죽 나눔 행사

슬기샘어린이도서관

12.20(화) 14:00~17:00

경기향토음식연구학술대회

수원전통문화관 예절교육관

12.28(수) 11:00~12:00

할매랑 나랑 쿡쿡

바른샘어린이도서관

12.31(토)

2016 제아콘서트

화성행궁 광장



● 공연 ● 전시 ● 교육 ● 행사

Suwon Cultural Foundation NEWS

'수원화성풍류음악회' 개최

재단은 지난 11월 1일 수원전통문화관에서 '수원화성 풍류음악회'를 선보였다.

이번 공연은 수원전통문화관내 홍재마루 공간을 공연장으로 재구성하여 전통의 맥을 지키고 이어온 품격 있는 우리의 소리와 춤사위를 전통 다과반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경기도립국악단의 여창가곡 '우락'을 시작으로 가야금 연주인 '황금산의 백도라지', 연주와 무용이 함께하는 '시나위와 살풀이', 가야금 병창 '민요 메들리', 경기도립무용단의 '승무' 순으로 약 60분간 진행되었다.

특히 관람객들은 전문 해설과 함께 산사나무 열매를 우려내 만든 우리나라 전통 음료인 산사화채, 쌀가루를 간장으로 간을 한 궁중의 대표떡인 두텁떡, 수원에서만 맛볼 수 있는 수원약과, 호두강정 등 제공되는 전통다식을 즐기며 공연을 즐겼다.

책읽어주는 상상롭

재단은 바른샘어린이도서관에서 전국 최초로 이용자 참여형 관리시스템 『책 읽어주는 상상롭』서비스를 제공한다.

『책 읽어주는 상상롭』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누구나 영상 및 이미지의 콘텐츠를 직접 생산·관리·서비스 제공까지 할 수 있는 복합멀티 공간으로 가족과 함께 책을 읽어 주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이야기 UCC제

작, 청소년들의 다양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창작아이디어 공간으로 운영된다.

또한 제작된 콘텐츠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제공하며,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예약·촬영·업로드 등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상상롭 앱(APP)을 개발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다.

수원문화재단 모바일 홈페이지 개설

재단은 사용자를 위한 신속한 정보제공과 열린 공간을 만들기 위해 모바일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이번 모바일 홈페이지 개설은 스마트폰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재단 홈페이지 방문객들의 이용 편의의 요구를 만족시키고자 개발했으며, 재단의 모든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홈페이지의 주요 서비스는 재단소개, 축제·문화행사·공모 관련 행사정보와 문화시설 소개, 열린의견 등 PC에서와 똑같이 모바일에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수원문화재단'을 검색해

손쉽게 접속할 수 있다.

한편 모바일 홈페이지 개설과 더불어 기존 콘텐츠 사용자의 이용분석을 통해 UI·UX개선, 온라인 통합접수 시스템 구축, 비회원제 도입 등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보다 편리한 이용과 사용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신뢰성을 증대시켰다.

또한, 새로이 개편된 홈페이지는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의 웹 접근성 품질 인증심사를 통과하여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하였다.

재단소식

Suwon Cultural Foundation
NEWS



예술인대상 <오에스> 교육 실시

재단은 전문예술인들의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한 <오에스(오늘날 예술인들에게 꼭 필요한 스킬)>사업을 지난 10월 18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수원문화재단 영상실에서 진행한다. 수원에

서 활동 중인 전문예술인·예술강사·기획자 및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참가 가능한 오에스는 각 분야별 전문 강사들을 초청하여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기술과 정보 공유를 목표로 한다.

어느 때 보다 화려했던 조선으로의 여행, 수원화성문화제



제 53회 수원화성문화제가 지난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43만여명의 관람객이 참가한 가운데 성료했다. ‘인인화락: 소통, 나눔, 공간’이라는 주제로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문화재단이 주관한 이번 수원화성문화제는 수원화성 행궁과 행궁광장, 연무대, 수원천 등 수원화성 곳곳에서 진행됐다.

수원을 대표하는 축제인 수원화성문화제는 올해 수원화성축성 220주년을 기념하고자 장소마다 그에 걸맞은 프로그램들을 구성, 수원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수원화성의 아름다움과 우수함을 알릴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마

련됐다.

축제 첫날인 7일에는 역사적 고종 『원행을묘정리의궤』를 토대로 정조대 왕의 지극한 효심과 개혁에 대한 원대한 꿈을 볼 수 있는 <해경궁 홍씨 진찬연>이 화성행궁 봉수당에서 재현됐다.

축제 둘째날에는 축제의 하이라이트 <정조대왕 능행차>가 서울에서 출발하여 셋째 날 연무대에 도착했다. 능행차 행렬이 끝나는 것과 맞물려 시작된 폐막연 <야조>는 무예공연으로 박진감을 더하며 3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이밖에도 부대행사로 아름다운 방화수류정과 용연의 야경을 배경으로

선보여지는 음악회 <방화수류정 달빛음악회>, 밤이 들러주는 정조이야기 <행궁야사>, 정조대왕이 수원지역 무사들을 등용하고자 거행했던 무과시험 재현 <백동수의 무과재현> 등이 펼쳐졌다.

축제기간 동안 수원천과 원천천에서는 <수원등불축제>가 펼쳐져 형형색색의 조명과 전통 등불을 통해 여러 가지 역사이야기를 흥미롭게 감상할 수 있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축제의 중심을 왕에서 백성으로 바뀌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더욱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오감만족의 축제의 장이 되었다.

수원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재단은 지난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수원SK아트 리움 대공연장에서 수원이 만든 첫 번째 제작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선보였다.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은 바람둥이 백작의 하인 피가로가 백작이 자신의 약혼녀인 하녀 수산나에게 흑심을 품

은 것을 알고 수산나와 백작부인을 끌어들이 백작을 골탕 먹이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는 이야기로 수원지역을 대표하는 역량있는 아티스트들은 물론 향후 우리나라 오페라계를 이끌어 갈 실력있는 젊은 성악가들이 대거 출연하여 그들의 끼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한 최고의 무대가 되었다.

All that Jazz, <2016수원재즈페스티벌>

재단은 지난 9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국내 최정상급 재즈보컬리스트와 연주자를 비롯해 다양한 음악분야의 스타들이 함께하는 <2016수원재즈페스티벌>을 경기 수원 광교호수공원 스포츠클라이밍장 야외특설무대에서 개최하였다.

9일 첫날에는 수플러스 라틴재즈퀸텟의 공연을 시작으로, 신현필 with Que Pasa의 공연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과 함께하는 신관용 빅밴드 13인조의 재즈공연이 펼쳐졌다. 대한민국 최정상 드러머 김희현과 차세대 소리꾼 송길화는 감동적인 국악과 재즈의 협업공연을 보여줬다. 또한 한상원 펑크재즈 9인과 래퍼 산이와 함께하는 재즈와 힙합의 콜라보레이션 공연도 많은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어냈다.

이틀 째인 10일에는 한용원프렌즈 공연과 재즈밴드 쿠마파크의 퓨전 재즈공연, 필운&프렌즈식스텟이, 재즈보컬 조아해의 공연이 있었다. 마지막 공연으로 대한민국 재즈디바 웅산의 공연이 페스티벌의 대미를 장식하며 온가족이 즐기는 재즈페스티벌이 성료되었다.



수원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싹틔움 회원 (12. 2. 기준)



싹SSAC 틔움 회원이 되어주세요

싹SSAC에 정기기부를 해주시 싹SSAC 틔움 회원을 모집합니다.
모두가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을 꿈꾸며,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여정에 함께해주세요.

싹틔움 회원

싹틔움 회원

싹틔움 회원



문화예술 기부 아름답고 가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의 나눔의 손으로 수원문화예술의 싹을 틔워주세요

싹ssac 이란

Suwon Sightseeing·Art·Culture를 의미하며 시민과 함께 문화·예술·관광의 '싹ssac'을 틔우고자 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싹ssac 틔움 회원이 되시면

주체	구분	후원액	특별예우	기본예우
개인	씨앗 회원 (연간회원)	月 3,000원 이상 年 30,000원 이상		
	물 회원 (연간회원)	月 10,000원 이상 年 100,000원 이상	· 年4회 * 문화꾸러미발송	· 감사카드 발송 · 기부금 영수증 발행 · 월간 뉴스레터 발송
기업	햇살 회원	1,000,000원 이상	· 인인화락 광고 게재 · 기획공연 티켓제공 · 기부자 네이밍 지정 · 기업 임직원들을 위한 문화행사 기획	· 인인화락 명단 게재 · 인인화락 발송

* 문화꾸러미란? 재단에서 기획하는 공연, 제작하는 기념품 등이 들어있는 선물상자입니다.

기부, 이렇게 참여 합니다

ARS기부 060-700-1199 (통화당2,000원)
온라인기부 홈페이지 하단 싹ssac 배너 클릭
현금기부 기업은행 168-020092-01-446 (재)수원문화재단

문의 및 신청하기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1 (재)수원문화재단
전화 031-290-3564
홈페이지 www.swcf.or.kr